

2005년 8월  
박사학위논문

#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윤 정 현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Impacts Scale Development  
of Regional Festival

2005년 8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윤정현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을 임

이 논문을 행정학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윤 정 현

# 윤 정 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교수	인
위 원	교수	인

2005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지역축제의 의미와 유형 및 기능 .....	7
1. 축제의 개념과 기원 .....	7
2. 지역축제의 의의 .....	14
3. 지역축제의 유형과 기능 .....	17
제2절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	23
1. 지역축제와 지역사회 .....	23
2. 사회적 영향 .....	31
제3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5
1. 지역축제 관련 선행연구 .....	35
2.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39
3. 선행연구의 평가 .....	47
제4절 분석모형 .....	48
제3장 조사설계 .....	51
제1절 측정문항의 탐색 .....	51

1. 척도개발의 배경 .....	51
2. 측정문항 개발 절차 .....	51
3. 측정문항의 탐색 .....	54
제2절 설문구성과 자료의 분석방법 .....	59
1. 설문구성과 측정 .....	59
2. 자료의 분석방법 .....	59
제3절 조사방법과 표본의 특성 .....	61
1. 조사방법 .....	61
2. 조사표본의 특성 .....	62
<b>제4장 사례분석 .....</b>	<b>65</b>
제1절 사례대상 축제의 개요 .....	65
1. 보성다향제의 유래 .....	66
2. 보성다향제의 행사내용 .....	67
3. 보성다향제 자원 .....	68
제2절 측정도구의 검사와 선별 .....	70
1. 측정도구의 사전검사 .....	70
2. 측정도구의 분석 .....	73
3. 측정도구의 검증 .....	82
제3절 기준변수의 평가 .....	90
1. 기준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검증 .....	90
2. 상관성 분석 .....	102
<b>제5장 결 론 .....</b>	<b>106</b>
제1절 연구요약과 분석결과의 함의 .....	106

1. 연구요약 .....	106
2. 분석결과의 함의 .....	10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	111
○ 참고문헌 .....	113
○ 설문지 .....	125

## 표 차 례

<표 2-1> 지역축제의 유형분류(예시) .....	19
<표 2-2>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의 필수요소 .....	24
<표 2-3> 지역사회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이유 .....	32
<표 2-4> 선행연구 요약 .....	39
<표 2-5>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자극에 관한 인과이론 .....	41
<표 2-6> 지역주민의 전략 .....	42
<표 2-7>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 .....	44
<표 2-8> 관광산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 .....	45
<표 2-9> 지역사회에 있어서 관광의 이익과 비용 .....	46
<표 3-1>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이익 문항 목록 .....	54
<표 3-2>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문항 목록 .....	56
<표 3-3>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 .....	57
<표 3-4> 지역축제의 사회적 비용 .....	58
<표 3-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63
<표 4-1> 사회적 이익에 관한 사전조사 분석결과 .....	71
<표 4-2>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전조사 분석결과 .....	72
<표 4-3> KMO와 Bartlett의 검정 .....	75
<표 4-4>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적재량 .....	77
<표 4-5> 제1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	79
<표 4-6> 제2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	81
<표 4-7> 제3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	82
<표 4-8> 사회적 이익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	85
<표 4-9> 사회적 이익의 하위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	86
<표 4-10> 사회적 비용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	88

<표 4-11> 사회적 비용의 하위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	89
<표 4-12> 기준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	91
<표 4-13> 기준변수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 .....	93
<표 4-14> 기준변수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	94
<표 4-15> 기준변수에 대한 지역 거주기간별 차이검증 .....	95
<표 4-16>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장소와의 거리별 차이검증 .....	96
<표 4-17>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장소와의 거리별 차이검증 .....	98
<표 4-18>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참여횟수 차이검증 .....	99
<표 4-19> 기준변수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검증 .....	100
<표 4-20> 사회적 이익과 기준변수의 상관분석 .....	103
<표 4-21> 사회적 비용과 기준변수의 상관분석 .....	104

## 그림 차례

<그림 2-1> 관광활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반응 .....	41
<그림 2-2> 분석모형 .....	50
<그림 3-1>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측정척도 개발과정 .....	53
<그림 4-1>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스크리테스트 결과 .....	76
<그림 4-2> 사회적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 .....	83
<그림 4-3> 문화·전통적 가치상승 요인에 관한 측정모형 .....	86
<그림 4-4> 개인적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 .....	86
<그림 4-5> 공동의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 .....	87
<그림 4-6> 사회적 비용에 관한 측정모형 .....	88
<그림 4-7> 축제의 의미퇴색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	89
<그림 4-8> 질서/환경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	89
<그림 4-9> 인적/물적자원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	90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Impacts Scale Development of Regional Festival

Yoon, Jung-Hyun

Advisor : Prof. Oh, Eul-Im, Ph. 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cale that measures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s of region festival.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ree stages. First, a listing of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region festivals are generated. Second, the listing of items is tested on judgemental sampling of officials Boseong Gun in Jeonnam. These items are then purified using Cronbach's alpha and item-to-total correlation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and factor analyses to assess the dimensionality of the scale and further purify the measure. Finally, the scale is verified through testing on local residents in Boseong Gun, Jeonnam. This study uses these procedures and applying directly to the emerging area of festival-related social impacts, and the standardized measurement and articulation of those impacts.

Each social impact in the Festival Social Impact Analysis Scale (FSIAS) is

measured in terms of the expectancy of the specific impact occurring, and in terms of the importance placed on that particular impact. Expectancy is multiplied by importance to give a measure of the resident attitude toward the specific impact. Attitudes for each impact are summed togeth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of resident perceptions of the overall social impacts of the festival. A two-factor solution, loading on benefits and costs, was identified during both the pretest of purification phase, and the verification phase of scale development.

A methodolog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makes that the understanding of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region festivals is its use of standardized scale development procedures. The development of the FSIAS responds to the need for standardized instrumentation for use in festival research. The FSIAS is two dimensions relating to the social impacts of region festivals: benefits and costs. The scale shows strong reliability and face, and constructs validity, and also good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y. There is a need to further validate the FSIAS by implementing it in other region, and with different types of festivals. It will allow for greater understanding of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s of region festivals, and the dynamic nature of those attitudes.

Keywords: region festivals, social impacts, scale development.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모든 곳에는 축제가 있다. 축제는 주로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나 기간에 행하는 의식과 부수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놀이, 휴가와 관련하여 재창조되거나 관광과 특산을 목적으로 새로 생겨난 축제들도 많이 있다. 축제내용과 성격이 무엇이든간에 축제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은 축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역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무형과 유형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은 이런 무형과 유형의 문화적 자산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개최한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유형적 자원이 고갈되어 왔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무형적 자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는 점에서 축제는 아주 중요하다.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질적·경제적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고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관광수입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 동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역주민, 그리고 축제 관계자들은 가능한 많은 외지방문객을 유인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만을 추구하면 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거나 거의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축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동과 사회적 문제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지역주민의 삶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요인들이 점차 스며들게 되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게 된다.<sup>1)</sup>

지역축제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과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지역축제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경제적 가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역축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이전에 문화로서의 고유한 가치, 즉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최근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는 축제의 두 가지 측면의 가치, 즉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 위에서 추진될 때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sup>2)</sup>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성장이 핵심이며,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몰입하다 보면 사회적 효과를 경시하게 되거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통제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비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3)</sup> 축제의 사회적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태도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축제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정신적 건강까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 효과만을 지향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sup>4)</sup>

- 
- 1) T. D. Hinch, "Sustainable Tourism in the Urban Jungle," in P. E. Murphy(ed.), *Quality Management in Urban Tourism: Balancing Business and Environment-Proceedings* (Victoria: University of Victoria, November, 1994), pp. 436-443.
  - 2) 임상오,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한국문화경제학회』, vol. 7, no. 1 (2004), p. 53.
  - 3) G. Dogan, K. Kyungmi & U. Muzaffer, *op. cit.*, p. 171.
  - 4)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축제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V. Rao, "Celebrations as Social Investments: Festival Expenditures, Unit Price Variation and Social Status in Rural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8, no. 1 (2001), pp. 71-97; V. Turner, Introduction. In V. Turner (ed.), *Celebration: Studies in Festivity and Ritual*.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2), pp. 52-61.

그동안 지역축제는 축제기획자나 행정기관에 의해 양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왔으며 왔으며 정치성을 배경에 두고 불가치적·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둔 평가를 수행해왔다.<sup>5)</sup> 따라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축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어떤 생각과 느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과 평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지역축제가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개최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의 진정한 생각과 태도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거나 지역주민의 관심 밖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의 정신과 문화를 승화시켜 나간다면 지역축제는 지속될 것이고 그 효과는 다른 요소로까지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축제의 사회적 효과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거나 외형적인 면만을 지향하게 된다면 축제가 축하의식 및 이벤트행사에 그칠 소지가 있으며, 외지관광객들에게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

---

5) 최근 들어 다양성과 대중성을 지닌 축제가 증대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전통 그리고 특산품을 매개로 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축제를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축제의 결과를 유형적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축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

자료: J. L. Crompton & S. L. McKay,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4, no. 2 (1997), pp. 425-439; C. Thrane, "Jazz Festival Visitors and their Expenditures: Linking Spending Patterns to Musical Interes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0, (2002), pp. 281-286; G. Dogan, K. Kyungmi & U. Muzaffer, "Perceived Impacts of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by Organizers: an Extension and Validation," *Tourism Management*, vol. 25, no. 2 (2004), pp. 171-181; W. C. Gartner & D. F. Holecek, "Economic Impact of an Annual Tourism Industry Exposi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no. 2 (1983), pp. 199-212; C. Kim, D. Scott, J. F. Thigpen & S. S. Kim, "Economic Impacts of a Birding Festival," *Journal of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5, no. 1/2 (1998), pp. 51-58; M. Walo, A. Bull, & H. Green, "Achieving Economic Benefits at Local Events: A Case Study of a Local Sport Even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 no. 3/4 (1996), pp. 96-106; M. Uysal & R. Gitelson, "Assessment of Economic Impacts: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2, no. 1 (1994), pp. 3-10.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지역축제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축제의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관한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평가보고서에서 사회적 영향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질적·정신적 효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축제의 기획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과정에 피드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자 지역축제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평가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축제가 열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지역이며, 연구대상은 지역축제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면서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지역의 차별적 특색을 토대로 출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 대상을 지역축제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태도를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4년과 2005년에 문화관광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보성다향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주민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열리는 축제는 ‘보성다향제’를 비롯하여 ‘보성소리축제’, ‘꼬막축제’, ‘전어축제’, ‘동로성 축제’ 등이 있으나 보성다향제가 대표적 축제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외형적 효과보다는 무형적·정신적·심리적·자극효

과와 인식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물론 지역축제의 효과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창출되는 무형적·정신적 가치로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태도 측정을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를 토대로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 및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관광 및 축제 그리고 이벤트에 관한 선행이론과 논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연구결과와 문헌등을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채택하여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측정도구의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 및 관광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과 측정문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는데, 국내외 각종 학술지 게재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위 단계를 통하여 측정문항을 도출·정리하고, 축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5년 1월에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WIN 11.5와 AMOS 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문항의 공통속성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분류된 잠재요인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성·확인된 잠재요인에 대한 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와 사회적 영향 요인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개인별·집단별 특성에 따라 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지역축제의 의미와 유형 및 기능

#### 1. 축제의 개념과 기원

##### 가. 축제의 개념

축제는 인류의 집단생활과 그 기원을 같이하여 왔다. 축제는 인간이 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종교적 행사로서 행해져 왔으며 공동체 사회를 더욱 결속시키고 발전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가무(歌舞)를 즐기며 살아온 민족으로서 지혜롭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축제를 통하여 존재의 근원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sup>6)</sup>

축제는 농업, 종교, 사회, 문화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어느 날이나 기간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축제에는 특별한 의례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성스러운 식사가 포함되며, 이것이 점차 세속화과정을 거쳐 연극적 무용, 체육행사, 카니발 등이 곁들여 졌다.<sup>7)</sup>

Eliade는 축제를 인간의 종교, 사회, 문화 등의 제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초월적 내지 초자연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축제에는 인간의 기원 주체성, 문명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여러 사건들이 의례적으로 정비되어 있는바, 축제 참가자들은 거기서 성스러운 시간을 체험하고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게 된다.<sup>8)</sup> Cosman은 축제를

6)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관광부, 1996), p. 4.

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p. 25-26.

8) M. Eliade, *Man and Sacred* (New York: Haper and Row Publishers, 1974); 김선기,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p. 39.

인간을 이해하는 최적의 방법은 인간의 의식들을 연구하는 것이며, ‘축제는 공통의 주제로 연결된 일련의 행사(events)’이고, 더 나아가 많은 문화적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sup>9)</sup>

Getz는 축제를 제의 및 의식 행사로 보고 ‘축제는 특별한 의식에 의해 규정된 제전·제의이며, 중요한 생산물의 수확이나 유명한 사람 또는 이벤트를 주제로 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제의’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sup>10)</sup> 특히 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의 경우 축제나 특별 이벤트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Weaver와 Robinson에 의하면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개최되고, 지역사회의 외부 정해진 사람들만 참석하는 행사’라고 설명하였다.<sup>11)</sup> 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반면,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sup>12)</sup>는 점에서 축제와 이벤트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축제와 이벤트는 행사가 열리는 빈도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이냐에 따라 구분되지만, 특정 주제 및 의도를 가진 행사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제와 유사한 용어로는 제전(祭典), 축전(祝典) 등이 있으나 이들이 정확하게 서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축제라는 용어는 옛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만들어진 조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축제라는 용어보다는 ‘잔치’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잔치는 축제보다는 소규모의 행사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규모가 큰 행사에도 잔치 또는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개념의 분별없이 축제의 용어사용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sup>13)</sup>

---

9) M. P. Cosman, *Medieval Holidays and Festiva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1), p. 34.

10)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p. 339.

11) G. D. Weaver & R. Robinson, *Special Event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of Missouri, 1989), p. 5.

12) M. Longson,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Impacts of a Festival on the Commun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Waterloo: University of Waterloo, 1989). p. 4.

13) 김선기, 전계서, p. 39.

축제를 영어로는 페스티발(festival)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된 체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를 일컫는다. 결국 우리의 축제와 영어에서 사용되는 축제의 의미인 페스티벌이 가장 근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영어권에서도 페스티벌과 유사한 용어들이 있다. 유사한 용어로는 Rite, Ritual, Ceremony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종교와 관련된 용어에서 출발하였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Rite를 의례(儀禮)로, Ritual을 제의(祭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Ritual이 Rite보다는 전통적 구속력이 다소 강하지만 둘 다 동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Ceremony(의식)는 의례보다도 비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축제란 보통 Festival을 번역해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앞에서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제의를 말한다.<sup>14)</sup> 이와 같은 축제의 개념적 정의 속에는 제의, 의식 및 행사를 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출신의 신학자 Cox는 그의 저서 『바보제』에서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라고 보면서 그 기회에서는 세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sup>15)</sup> 그가 제시한 축제의 본질적 요소는 고의적(故意的) 과잉성, 축의적(祝儀的) 긍정성, 대국성(對局性) 등이다. Cox가 제시한 첫 번째 본질인 고의적 과잉성이란 축제 때는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난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도덕성이나 금기 시 되어온 행동들도 잠정적으로 구속력이 완화되고 축제참가자들도 각자 기묘한 복장과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잠시나마 인습적인 과거와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제의 본질인 긍정성이란 제축이 언제나 기본적으로 ‘생을 긍정한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즉 축제에서는 인간 생활이 고뇌와 번민, 절망 등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축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축제의 본질인 대국성이란 축제가 하나의 뚜렷한

14) 이은봉, 『놀이와 축제』 (서울: 주류, 1982), pp. 40-41.

15) 김천배 역, 『바보제』 (서울: 현대사상사, 1982), pp. 41-43.

대조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축제는 일상생활과 상이한 것이지만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축의적(祝儀的)인 과잉성을 함축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작업관계, 중요성을 잘 대조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축제는 일상의 모습과는 대별되는 것이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난장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난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내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Cox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인간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주어진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축제는 역사와 종교성의 신성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축제가 대체로 신성성을 상실한 채 축(祝)만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의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축제의 의미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축제는 신성성과 전통성 그리고 지역성을 가지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외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일상적인 질서의 중압으로서 시들어버린 잠재의식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력과 일상의 활력을 공급하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제로 생각하게 된다.

## 나. 우리나라 축제의 기원

우리의 역사에서 인간사회에 축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예술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 축제라고 한다면 민속 예술의 시원(始原)이라고 볼 수 있는 제천의례가 우리 축제의 원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

16) 김명자, “민요의 본질과 연구의 필요성,” 『서정범박사회갑기념논문집』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1986), pp. 334-335.

우리나라 축제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전한다. 그 부여조(夫餘條)에 이르기를 음력 정월에 하늘 곳을 드리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크게 모여 며칠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하였다. 일년에 일정한 때에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하늘 곳을 거행하기로는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나 예(濊)의 무천(舞天)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와 예의 경우 그 축제가 10월에 거행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또 마한(馬韓)에서는 5월과 10월 하늘 곳을 지내며 주야로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고대사회의 이런 축제가 중국의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한국사회의 축제는 우선 한국 전통종교 내지 기층종교로 일컬어지는 무(巫)의 의례이자 축제였다는 점, 천신(天神)신앙과 직결된 점과 농경제 내지 추수감사제의 성격 등의 특징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축제는 하늘 곳을 원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천손이라는 인식을 갖고 봄가을로 계절적 소생과 결실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나라가 크게 모여서 하늘 곳을 올렸고 며칠씩이나 밤낮으로 쉼 없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음주가무와 신명의 잔치가 배풀어졌던 것이다.<sup>17)</sup>

앞에서 우리 축제의 시원을 문헌상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로부터 파악해 보았다. 이것은 중국문헌이지만 이후 나온 우리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 축제의 모습은 곧잘 나타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희락사모지사(戲樂思慕之事)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에 나오는 여자들의 가배일의 놀이 등은 우리 축제의 원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sup>18)</sup> 해마다 7월 29일이면 즐겼다는 그 주기성은 곧 세시풍속임을 뜻하며 축제와 같은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여자들이 길쌈대회를 마치고 한가윗날 흐드러지게 놀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한가위에 여자들만의 축제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17) 이상일, 『축제와 마당극』 (서울: 조선일보사, 1986), p. 147.

18) 희락사모지사는 “매월 7월 29일에 이 지방 사람들과 서리, 군졸들이 승점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논다. 이들은 동서로 서로 눈짓하고 건장한 인부들은 좌우로 나뉘어 망산도로부터 빠른 말굽으로 나는 듯이 육지로 달리고 물위에 밀리어 북으로 고포(古浦)를 향하여 다투어 달아난다. 이것은 옛날에 유천·신귀 등이 허황후(許皇后)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수로왕에게 알리던 자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 문화관광부, 전게서, p. 24.

우리의 전통에서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각종 세시의례는 신성성을 지닌 제의와 유희가 포함된 하나의 축제였다. 특히 한가위에 여자들이 모여 여성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어쩌면 강강술래라든가 놋다리밟기 등과 같은 여성놀이가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삼국시대에는 각종 놀이들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시의례도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sup>20)</sup> 축제 역시 그 만큼 보편화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는 신라사회의 연장으로서 전 시대의 세시의례가 그대로 전승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원단, 상원, 한식, 상사, 단오, 중구, 동지, 팔관, 추석이 고려의 9대 속절(명절)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정한 명절일 뿐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밖에도 크고 작은 명절행사가 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알려진 대로 고려는 불교국이어서 불교행사가 두르러졌다. 그 가운데서도 9대 속절의 하나인 팔관회,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등회는 큰 행사였다. 그런데 팔관회와 연등회는 외적으로 불교법회였을 뿐 그 내용에는 상고시대의 농경의례였던 제천의례와 같은 축제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다만 팔관회가 개성과 평양의 양경(兩京)에서 행해진 국가적인 축제였던 반면 연등회는 전국 향촌사회서 일제히 베풀어진 한층 민중적이었다. 고려가 멸망한 후 팔관회가 사라진 반면 향촌 사회에서 행해진 민중적인 축제 연등회는 억불숭유정책으로 유교를 이념화한 조선시대에 이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축제의 흔적은 이밖에도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데 그 대부분이 제액초복(除厄招福)하여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농경국의 성격에 적합하게 풍농을 기리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축제는 대체로 각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축제의 원모습인 시간과 공간과 제약이 있는 세시의례와 같은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후대에 와서 인위적으로 만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것도 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축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속을 바탕으로 한 축제는 대

---

20) 장주근, “세시풍속의 역사적 고찰,” 『한국민속논고』 (서울: 계몽사, 1986), p. 479.

체로 마을 단위로 행해진다. 그래서 지역축제로 일컫는다. 그러나 향토축제라는 용어가 고향이라는 낭만적 선입견으로 인해 고장 중심의 이해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자기 고장 중심의 향토문화는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감정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sup>21)</sup>

우리는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식의 축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으므로 전승이 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축제의 정서를 서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민족은 축제가 없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종합예술로 일컬어지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는 바로 우리 축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축제의 구성내용은 바로 민족의 신앙적 심성의 표상이다. 축제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축제 속의 민족의 신성적 심상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축제는 그 본래적 의미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과정에서 기능도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다. 새롭다는 의미는 과거에 전혀 없던 기능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과거적 기능보다는 현대에 걸맞은 기능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적인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본래적인 의미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축제를 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존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 역시 만능의 답, 혹은 바로 같은 답일지 모르나 가장 궁극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sup>23)</sup>

이상과 같이 축제의 기원에서 살펴봤듯이 축제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융합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기능적 복합성을 지니고 인간의 생존과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이며, 지역축제는 지역의 생존 즉 지역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지역주민의 물질적·정신적 풍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

21) 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서울: 지식산업사, 1991), p. 117.

22) 김명자, “민속놀이 속에 비춰지는 향취,” 『불교사상』 (불교사상사, 1986), pp. 59-60.

23) 문화관광부, 전계서, p. 29.

## 2. 지역축제의 의의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 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반면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전통축제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문화제(文化祭)·예술제(藝術祭)·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 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오늘날에는 협의로 보다는 광의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경향이다. 물론 이렇게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해도 역사성과 전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역축제의 범위를 이와 같이 넓히는 까닭은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바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正體性)을 갖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개체분화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한층 요구된다.<sup>24)</sup>

지역축제의 의미를 좁게 보거나 넓게 보건간에 지역축제의 현대적 의미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현대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질 높은 정신적 건강 추구’라는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질 높은 정신적 삶은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을 가져다주며,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동질성을 확립시킨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이다. 이러한 동질성은 구성원 각자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시켜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을 준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이 강할수록 그 지역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며, 이럴수록 지역사회 내지 국가라는 존재의 가치구현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축제 지역사회의 정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sup>25)</sup> 또한 지역축제는 궁극적으로 지역민들끼리 존재를 서로 확인하기 위한 문화적

---

24) 김명자,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12집 (1995), pp. 185-186.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축제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통틀어 확인하는 통과의례의 하나인 것이다.<sup>26)</sup> 따라서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이어져오는 전통 있고 개성 있는 제의적 놀이마당의 성격을 띤 문화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충실하고 윤택하며,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주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창조해 가는 지역문화이다.<sup>27)</sup> 지역축제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의 전승 생명체이므로 복잡한 상징성과 다양한 개성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동일 선상에서 축제를 생각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동이념과 현실적 삶의 모습, 미래 지향성, 문화의 이해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지역축제를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너와 나’라는 동위적(同位的) 개념이기보다는 ‘나’는 ‘나’일 뿐 그 외는 ‘그것’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성향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로서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덕은 ‘축제는 행정적 단위를 상징적·문화적으로 재현해내는 공간’으로 보고, ‘외부인’과 ‘우리’를 상징적으로 구분해 내는 경계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축제는 행정적 단위를 같은 지역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행정적 단위에 따른 지역정체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sup>29)</sup> 송시열도 지역축제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논의에서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목적으로

25) 문화관광부, 전게서, pp. 66-68.

26) 장철수,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추최 세미나 초록집』(1994), p. 57.

27) 함석중,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94), p. 24.

28) 장정룡,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축제』(강원도: 한국문예진흥원, 1996), p. 2.

29) 이정덕, “지역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vol. 5, no. 2 (2003), p. 12.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0)</sup>

Getz와 Frisby는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축제는 많은 형태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축제는 대중적 주제를 담은 축하행사이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축제 명칭은 명확해야 될 것이고, 축제 참여자의 문화와 공유된 가치가 부분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축제는 모든 축제의 요소들을 응집력의 이벤트로 연결하는 통합적 노력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통과 정체성의 뿌리 없이 그리고 대중적 소유의식이 없이는 축제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지적하였다.<sup>31)</sup> 이같은 의미는 지역 축제가 지역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식과 삶 속에서 온당한 개념으로 자리잡혔을 때, 지역축제의 존재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축제는 고유성이라든가 전통성을 기저로 하면서 현대적 추이에서 시간적인 깊이를 보완하여 지역의 역사 및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지역민의 공감대가 설정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때 그 축제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래서 내용도 유사한 “형식적인 행사”는 무의미하다. 지역축제의 올바른 계승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관심권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가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축제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및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

30) 송시열, “광주·전남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3), p. 391.

31) D. Getz & W. Frisby, "A Study of the Role of Municipalities in Developing Festivals and Special in Ontario," *Occasional Paper*, Waterloo: University of Waterloo,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no. 16 (1990), p. 1.

### 3. 지역축제의 유형과 기능

#### 가. 지역축제의 유형

현대적 의미의 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성격을 뚜렷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축제의 분류는 분류기준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정부의 공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지역축제의 분류는 문화관광부에서 개최목적과 프로그램 구성형태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이다. 먼저 개최 목적에 따라서는 지역축제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는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축제분류는 분류기준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분류결과가 상호 중복되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축제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Schuster는 축제 또는 이벤트를 특성에 따라 대행사(spectacles), 제의(rituals), 예술축제(artistic events programme), 교역축제(trade fair), 대중축제(popular fair), 도시축제(popular citizen's festival)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sup>32)</sup> 이 역시 기준 자체가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역축제는 향토자산의 소재와 활용형태에 따라 산업축제, 문화축제, 생태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3)</sup> 먼저 산업축제는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산품을 소재로 이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전통적 특산물 또는 특산품이 소재가 되지만 때로는 공산품 또는 첨단산업 등을 테마로 삼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문화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예술을 테마로 설정하여 주로 관

---

32) J. M. Schuster, "Two Urban Festivals: La Merce and First Night,"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 19, no. 2 (1995), pp. 173-187.

33) 김선기, 전계서, p. 44.

광 또는 지역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며 전통적 축제와 연관이 깊은 축제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축제는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서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또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이밖에 기타 분류로 종합형 문화축제와 역사·제의적 축제, 민속놀이경연중심의 축제, 그리고 현대예술제 형태의 축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34)</sup>

첫째로, 종합형 문화축제는 전통민속행사와 함께, 도민, 시민이나 군민의 날과 같은 위안경축행사, 체육대회와 같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합성되어 치르는 축제이다. 이것은 대체로 문화제나 축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축제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둘째로, 역사·제의적 축제는 일정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는 추모제, 산신제, 부락제 등과 같은 제의를 중심으로 열리는 경우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차츰 종합형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본래 취지만을 살려 나가는 경우도 있다. 역사·제의적 축제가 종합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축제 자체의 의식변화를 들 수 있다. 축제라고 하면 체육행사가 끼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종합형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주민동참을 유도한다는 명분도 있으나 축제의 원초성을 살피나가는 방향에서 나름대로 독창적 축제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민속놀이 경연 중심의 축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다.<sup>35)</sup>

이상과 같이 지역축제의 유형을 예시로 구분하면 <표 2-1>과 같아 나타낼 수 있다.

---

34) 문화관광부, 전게서, pp. 170-172.

35) 경연대회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임재해(1995)는 민속자체는 경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제하에, 민속예술을 제대로 고증하고 이를 전승하는 방향에서 민속의 본질에 입각한 민속문화전승대회를 개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임재해, “한국 지역축제문화의 재조명, 『비교민속학회 세미나 자료』, 1995. 11.

<표 2-1> 지역축제의 유형분류(예시)

분류주체	기준	유형	사례
문화관광부	개최목적	주민통합축제	구민축제, 와룡문화제
		관광축제	부산바다축제, 백운산 옥수제
		산업축제	포도아가씨선발대회, 감골큰잔치
		특수목적축제	춘천국제연극제, 여수진남제
	프로그램 구성형태	전통문화축제	진도영등축제, 해주대첩제
		예술축제	녹색도시문화축제, 창원예술제
		종합축제	동래충렬제, 메밀꽃축제
		기타축제	남해바다축제, 이천도자기축제
Schuster	테마, 특성	spectacles	올림픽게임, Paris 2백주년 기념식
		rituals	Seville의 성령행진
		trade fair	Cannes Film Festival, Frankfurt Bookfair
		artistic events programme	Edinburgh Festival
		popular fair	연대회, 풍선대회
		popular citizen's festival	거리축제, 행진
김선기	향토자산의 종류 및 활용형태	산업축제	경기도자기박람회, 금산인삼축제, 통영나전칠기축제, 광주김치축제, 익산보석축제 등
		문화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전주대사습놀이 등
		생태축제	무안연꽃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축제, 안면도꽃박람회, 보성다향제 등
	기타	종합형문화축제	전통민속행사, 도민·시민의 날과 같은 위안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역사·제의적 축제	인물추모제, 산신제, 부락제
		민속놀이경연중심의 축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현대예술제	

자료: 김선기,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p. 45를 수정 보완.

## 나. 지역축제의 기능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풍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장주근은 축제의 기능으로서 원초 제의성의 보존, 향토민의 일체감,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효과, 그리고 관광적 의의를 제시하고 강릉 단오굿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를 들고 있다.<sup>36)</sup>

김명자는 축제의 기능에 관한 논의에서 세시풍속의 기능을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통사회에 있어서 축제의 기능으로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예술적 기능, 오락적 기능, 그리고 생산적 기능을 들었다.<sup>37)</sup> 첫째로 종교적 기능은 축제의 종교성과 직접 관련될 뿐 아니라 앞에서 논의되었던 원초 제의성과도 관련된다. 둘째로 윤리적 기능은 제천의식에서 하늘에 제사 지낸 것은 천신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윤리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 기능은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기 확인과 자기 인식·공동체 의식의 고양 및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포괄한 것으로 장주근이 제시한 향토적 일체감과도 통할 수 있다. 넷째로 정치적 기능은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들이 모이는 대동회와 같은 조직이 구성된다. 대동회는 오늘날의 정치모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대동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마을의 일이 처리된다. 다섯째로 예술적 기능은 축제가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오락성 기능 역시 마찬가지다. 축제가 일상적인 생활과는 구별된다는 축제의 일탈성(逸脫性)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기간에

36) 강릉 단오굿은 5월 과종후의 풍요의례라는 점에서 원초 제의성을 보존하고 있고, 단오굿 행사 때에는 평소처럼 물질을 추구하던 세속생활에서 일단 떠나서 정신적인 공동의 광장에 모여 서로 만나서 놀고 즐기며 일체감을 다지는 기회를 갖는 의미에서 향토적 일체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행사 종무에는 상황제와 별신굿이 진행되는 한편에서 가면극, 씨름판, 풍물경연, 시조경창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데 이러한 행사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단오굿이 열리는 곳에서는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를 볼 수 있고 거리에 관계없이 많은 전국민에게 볼거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관광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장주근,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2), pp. 30-33.

37) 김명자,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제2집 (1992), pp. 233-255.

는 일상의 일거리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로워질 수 있고 기쁠 수 있다. 긴장과 이완의 순리가 교차되는 시간이 축제기간으로 전이되는 시기이다. 축제의 오락성은 이완의 극치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축제의 이완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긴장과 이완의 리듬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작업이다. 그래서 축제의 기능 중의 하나인 생산적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생산의 개념이 물질적·유형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신적 안녕과 풍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정신적 건강을 토대로 하여 물질적 재생산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축제가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축제가 지역주민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sup>38)</sup>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기능은 산업사회에 들어서도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물론 같은 양성의 문화가 전승된다 하더라도 기능이 전혀 상반될 수도 있는데 축제는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사회에서 축제의 전통적 기능은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기능하던 종교적 기능은 산업사회에서도 퇴색된 대로 유지되고 있다. 강릉 단오제의 제사를 비롯하여 은산별신제, 해서풍어제, 남이장군당제 등에서는 무당굿이 포함되어 탈제의화(脫祭儀化)된 대로 종교성의 흔적을 보여준다. 윤리적 기능 역시 축제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며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사회적 기능은 가장 강조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기능은 당연히 정치적 기능에까지 연장되며 오락적 기능 역시 마찬가지다.<sup>39)</sup>

산업사회에서는 오락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폭은 대단히 넓다. 그러기에 전통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오락적 기능은 축제의 퇴색·축소에 따라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 명맥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적 기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생산적 기능의 경우 전통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충족으로 이념적이라면 산업사회에서는 실질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능과 맥락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경제

38) 김명자, “한국세시풍속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8), p. 59.

39) 문화관광부, 전계서, p. 35-37.

활성화하는 모토아래 경제성을 기반으로 지역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기능과 산업화 사회에서의 기능이외도 김선기는 현대적 현대적 의미에서 지역축제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sup>40)</sup>

첫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일차적 효과는 관광 촉매제, 부가가치 증대, 이미지 개선, 관광객 수요관리 등 지역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이다. 오늘날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밖에도 산업축제의 경우와 같이 축제를 통해 지역특산물이나 특산품 등의 판촉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축제를 통해 동일지역에 사는 지역사회 구성원간 동질감, 유대감을 증진하고 지역특성과 문화특이 복합, 연출되어 ‘우리다움’ 즉 지역정체성을 재창조할 수 있다. 축제는 개인에게는 질 높은 정신적 삶의 만족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 또는 동질감의 공유를 통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지방정치의 매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축제에의 참여를 통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이나 지방행정의 방향과 방침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넷째, 지역축제의 부수적 효과로서 교통, 숙박시설, 미관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제 자체는 물론 축제 장소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이다.

---

40) 김선기, 전계서, pp. 45-46.

## 제2절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 1. 지역축제와 지역사회

#### 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축제에 의의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다. Rousseau는 지역사회의 관념에 대해, 지역사회는 많은 개체들이 중단 없이 계속 돌아간다고 말하였다.<sup>41)</sup> 이 같은 의미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유기체로써 연속체적인 관계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는 또 다른 하나의 유기체로 구성된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적과 지역사회의 특징을 가진 목표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의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본질은 지역사회의 의미, 지역주민의 귀속감과 웰빙 감각을 제공하게 된다.<sup>42)</sup> Etzioni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심리·사회학적으로 관찰이 필수적이며 개인이 지역사회를 다른 개체로서 조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즉 개인들은 지역사회와 같이 다른 개체와의 연계 없이 기능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역시 개인들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공동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Selznick은 지역사회의 근본 기준이 되는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를 고찰한 반면,<sup>44)</sup> Martinez-Brawley는 지역사회의 생활의 필수

---

41) M. F. Rousseau, *Community: The Tie that Binds* (M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p. 3.

42) E. E. Martinez-Brawley, *Perspectives on the Small Community: Humanistic view for Practitioners* (MD.: Silver Spring, NASW Press, 1990), pp. 10-20.

43) A. Etzioni, "What Community? Whose Responsiveness?," *The Responsive Community*, Vol. 1, no. 2 (Spring 1991), pp. 5-8.

44) P. Selznick, *The Moral Commonwealth: Social Theory and the Promise of Community* (CA.:

적인 요소로 연대(solidarity), 의미(significance), 그리고 안전(security) 등을 주장하였다.<sup>45)</sup> 먼저 결속력 혹은 우리는 하나라는 연대감, 둘째는 지역사회의 생각을 영속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퍼지게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기여요인들에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성, 셋째는 공동의 상호관계, 환경의 친밀성, 친구와 이웃 간의 정(情)과 지지 등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안전성 등이 그것이다.

<표 2-2>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의 필수요소

요 소	내 용
연 대	결속력 혹은 우리는 하나
의 미	지역사회의 생각을 영속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퍼지게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기여요인들에 중요성을 가지게 한다.
안 전	공동의 상호관계, 환경의 친밀성, 친구와 이웃 간의 정(情)과 지지 등이 깨져서는 안 된다.

자료: E. E. Martinez-Brawley, *Perspectives on the Small Community: Humanistic view for Practitioners* (MD.: Silver Spring, NASW Press, 1990), p. 14.

Crittenden은 Martinez-Brawley와 비슷하게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로 네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생활방식 전체를 공유해야 하고 목적에 대한 수단과 관련된 관심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면대면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는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배려하고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자의 책임감을 공유하며, 넷째는 정체성을 지역사회 중심에 두고 관계십, 윤리, 역할, 정신, 그리고 전통은 개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자신을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는 것이다.<sup>46)</sup>

이상과 같이 Crittenden, Martinez-Brawley의 주장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의미

University Press of California, Berkeley, 1992), pp. 25-49.

45) E. E. Martinez-Brawley, *op. cit.*, pp. 10-20.

46) J. Crittenden, *op. cit.*, p. 132.

(meaning), 귀속감(sense of belonging), 여러 사람들과의 웰빙의식(sense of well-being)을 지향하는 공동사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론가들은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해, 지역(territorial), 공간(spatial), 관심범위(interest dimension) 등을 들고 있다. Willmott는 지역사회를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체의 대중을 영토 지역사회(territorial community)라고 말하고, 같은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을 관심 지역사회(interest community)라고 말하고 있다. Willmott가 이렇게 구분하는 특징들은 지역사회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일정한 영토 속에 있으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sup>47)</sup> 그리고 Lyon은 지역사회에 대한 특징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공동 연대의식의 공유, 서로서로 상호작용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지역사회는 영토 안에서 조직화되며, 둘째로 대부분 농사 일 종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셋째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생활하는 개별 단위를 그 기본요소로 삼고 있다고 한다.<sup>48)</sup> Poplin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정한 지리적인 구역 안에서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살아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oplin은 지역의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수는 첫째, 영토적 면에서 지리적인 구역, 둘째, 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셋째,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의 연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여기에서 공동의 장소 혹은 거주는 지역의 생활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지역사회는 관심활동 혹은 공유된 믿음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도 한다.<sup>50)</sup>

축제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건강성을 지향한다. 지역의 건강성은 각 주민의 기여에 달려있으며, 지역사회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51)</sup> 주민들은 다른 많은

---

47) P. Willmott, *Community Initiatives: Patterns and Prospect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9), pp. 17-18.

48) L. Lyon, *op. cit.*, p. 7.

49) D. E. Poplin,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MacMillan, 1979), pp. 89-92.

50) P. Selznick, *The Moral Commonwealth: Social Theory and the Promise of Communi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2), p. 359.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동시에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로 개인들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며 특정 지역 혹은 영토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sup>52)</sup> 지역사회 주민들은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지역사회는 개별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개별 주민들은 지역사회 전체가 신장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sup>53)</sup>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상호의존적 감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축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축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문화를 실체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축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축제 프로그램작성자, 장려자, 주최자, 자원도우미, 구경꾼 혹은 실행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스킬과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높여 갈 것이다.<sup>54)</sup> 애착을 가진 주민들의 감정이 높아 가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다.<sup>55)</sup>

축제의 본질은 축제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대중적 행사가 되어야 한다.<sup>56)</sup> 지역사회에서 추구되는 많은 목표와 이익들은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강화시키는 토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은 대중적 축제를 기본으로 하여 나타나야 한다. 지역축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가 방문객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57)</sup>

---

51) P. Willmott, *Community Initiatives: Patterns and Prospect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9), p. 18.

52) D. E. Poplin, *op. cit.*; K. Wilkinson, "In Search of Community in the Changing Countryside," *Rural Sociology*, vol. 51, no. 1 (1986), pp. 1-17.; P. Willmott, *op. cit.*, p. 18.

53) D. I. Warren, *op. cit.*, p. 315; L. Lyon, *op. cit.*, p. 7.

54) P. Willmott, *op. cit.*, p. 20.

55) W. B. Davidson & P. R. Cotter,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6, no. 7 (1986), pp. 608-619.

56) D. Getz & W. Frisby, *op. cit.*, p. 22.

57) T. D. Hinch & T. A. Delamere, "Native Festivals as Tourism Attractions: A Community Challenge," *Journal of Applied Recreation Research*, vol. 18, no. 2 (1993), pp. 131-142.

지역사회의 규모가 크거나 작은 것에 상관없이 축제는 매년 개최되며, 지역사회의 공간적 감각을 토대로 형성된다.<sup>58)</sup>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영향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인식도 해야 한다. 만약 지역사회에 있어서 축제의 영향이 구조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어진다면, 축제 주최자들은 방문객의 요구에 밀려 지역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영향을 지각하고, 그들의 지각된 영향을 통해 관리된다면, 축제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수용·확산되거나 아니면 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축제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축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축제는 경제적·재정적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방정부와 축제 주최 및 주관자들은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축제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의 손익기준으로 축제 참가자와 재정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축제의 경제적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지역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은 무시되기 쉽다. 그러므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혹은 환경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간의 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축제를 주관하는 조직은 축제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지역사회와 좋은 공공관계를 조장하기 위해서, 축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주관기관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리더와 주민들 모두도 축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자문(自問)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은 경제적 목표인가? 경제적 목표가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목표와 양립될 수 있도록 표현할 수는 없을까? 등 이런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58) T. A. Delamere & T. D. Hinch, *op. cit.*, (1994a), pp. 26-29.

## 나.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지역사회 관련 변수들이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해 보면, 지역축제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Lankford와 Howard는 지역사회 관광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지역주민들이 지각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변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59)</sup>

첫째, 그곳에서 거주기간(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반응은 더욱 부정적이다)으로, 이에 대해서는 Allen과 그의 동료들도 같은 견해를 취한다. 둘째, 관광에 관한 경제적 의존이다. 셋째, 관광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관여(많은 관여를 할수록 많은 지지를 보낸다). 이에 대해서는 Ap와 그의 동료들과 Havitz도 같은 견해를 취한다.<sup>60)</sup> 넷째, 주민들의 집으로부터 중심 관광지의 거리(집과 중심 관광지의 거리의 멀수록 주민들은 더욱 냉담하다). 다섯째, 관광에 대한 지식수준(지식수준의 증가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 일곱째, 여가기회(관광이 여가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들의 지지는 약해진다). 여덟째, 지역사회 성장률(성장률이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태도를 완화시킨다).

이밖에 관광과 관련된 문헌에서, 다른 변수들도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Allen과 그의 동료들도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관광발전 수준을 고찰하였다.<sup>61)</sup> Getz의 주장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가기회에 관하여 지각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실제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 즉 여가행동에 있어서 방문객의 참여를 통해 방문객과 지역

---

59) S. V. Lankford & D.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 (1994), pp. 121-139.

60) M. E. Havitz, "Consumer Behavior and Tourism: Review and Extension of Four Study Area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vol. 3, no. 3 (1994), pp. 37-57.

61) L. R. Allen, P. T. Long, R. R. Perdue & S. Kieselbach, *op. cit.*, pp. 16-21.

주민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화되는가를 살펴보았다.<sup>62)</sup> 그리고 기타 고려되어야 할 변수를 연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제시하면, McCool와 Martin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수준(애착이 높을수록 관광 관련 개발을 지지한다), Perdue와 그의 동료들은 지역사회 미래에 대한 지각(지역사회 미래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면, 지지는 적극적이다), Butler는 지역주민 삶의 질(주민들이 불편하면 개발이 증대된다),<sup>63)</sup> 그리고 Allen과 그의 동료들은 관광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근접성(개발수준과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적극적인 태도)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광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계량적 접근에 있어서, Ap와 Crompton은 지역주민의 전략적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하면서, 관광 관련 연구에 있어서 표준화된 도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Lindberg와 Johnson은 관광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sup>64)</sup>

Lankford와 Howard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심리측정절차에 의한 관광영향 태도척도(TIAS,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특히 TIAS는 다른 상황과 경우에 있어서 관광객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다항목 Likert 태도척도로, 적절한 비교분석을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sup>65)</sup> TIAS에 사용된 항목 진술이 원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술된 Likert 척도가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태도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구조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sup>66)</sup> TIAS는 관광의 영향에 관한 주민태도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7)</sup> Lindberg와 Johnson의 설명

---

62) D. Getz, "Impacts of Tourism on Residents' Leisure: Concepts, and a Longitudinal Case Study of Spey Valley, Scotland,"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4, no. 2 (1993), pp. 33-44.

63) R. Butler, "Tourism as an Agent of Social Change," *Tourism as a Factor i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Occasional Paper #4*. (Peterborough: Trent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1975), pp. 85-90.

64) L. Lindberg & R. L. Johnson.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4, no. 2 (1997), pp. 44-60.

65) S. V. Lankford & D. R. Howard, *op. cit.*, pp. 121-139.

66) G. H. G. McDougall & H. Munro, "Scaling and attitude measurement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in J. R. B. Ritchie, C. R. Goeldner(2nd ed.),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 handbook for Manager and Researchers* (New York: Wiley, 1994), pp. 155-130.

에 의하면, 관광 관련 개발(축제가 관광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들은 태도를 다양하게 지각된 관광 관련 이익과 비용에 대한 기능에서 찾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몇몇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심리측정학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태도를 확인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태도와 행동간의 연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 특히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와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Lindberg와 Johnson은 주민들의 태도연구에서 사용된 기대-가치 모델 원칙을 강조하였다. 필수적으로 주민들은 그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sup>68)</sup> 기대-가치모델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태도를 축제의 결과나 축제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믿음(기대)으로써 기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sup>69)</sup> 다시 말하면,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축제의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믿음과 기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Lankford와 Howard의 연구는 일반적 관광개발에 관한 주민태도 측정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와 주민태도의 독립변수를 확인하려는 두 가지 관광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Lankford와 Howard 그리고 Mayfield와 Crompton<sup>70)</sup>이 이용한 척도개발과 검사절차는 계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완전한 절차로 만족스럽게 구축되었다. 축제 관련 영향이 일반적 관광 관련 영향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관광의 뿌리가 축제이므로, 관광 관련 영향에 관한 논의를 축제와 관련 지역사회 발전 메커니즘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

67) L. Lindberg & R.L. Johnson, *op. cit.*, pp. 85-90.

68) A. Eagly & S. Chaiken, *Psychology of Attitude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93), pp. 133-144.

69) L. Lindberg & R.L. Johnson, *op. cit.*, pp. 44-60.

70) T. R. Mayfield & J. L. Crompt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Identifying Community Reasons for Staging a Festiv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3, no. 3 (1994), pp. 37-44.

## 2. 사회적 영향

축제에 대한 Getz와 Frisby의 개념화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견해는 지역사회 (community)의 중요성이다.<sup>71)</sup> Bowles는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 주요 사회적 기능들이 지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작동되는 사회적 단위 또는 시스템의 조합이며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회제공 기능의 활동 중심이 되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말하였다.<sup>72)</sup>

축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집단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에서 추구되는 많은 목표와 이익들은 지역사회 문화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증대시키려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축제행사의 기본 뿌리는 지역사회의 공간적·장소적 개념 아래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73)</sup>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축제는 사회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역축제를 통한 이익들은 근본적으로 비금전적(non-monetary)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의 향상된 상태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Weaver와 Robinson은 지역축제 기획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지역사회 정신 승화, 교육적 목표와의 연계,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매력 요인 제공을 통한 관광 촉진, 이상의 요인들의 조합 등을 제시하였다.<sup>74)</sup> 또한 Weaver와 Robinson은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서 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를 <표 2-3>과 같이 설명하였다.

---

71) D. Getz & W. Frisby, *op. cit.* pp. 27-35.

72) R. T. Bowles, *Social Impact Assessment in Small Community* (Toronto: Butterworths, 1981), pp. 41-42.

73)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p. 7.

74) G. D. Weaver & R. Robinson, *Special Event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of Missouri, 1989), p. 6

<표 2-3> 지역사회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이유

- 지역사회 정신과 긍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 지역의 문화적 스킬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특별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 사람들의 명예, 역사적 사건, 혹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자료 : G. D. Weaver & R. Robinson, *Special Event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of Missouri, 1989), pp. 7-8.

또한 지역축제 경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만 한다. Tourism Canada는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 축제의 모든 과정에 대중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중의 긍지와 명성을 끌도록 유인하는 일을 강조하였다.<sup>75)</sup> 축제의 각 단계와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도록 주제와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Getz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사회는 리더십 촉진, 자아존중 향상, 정체성 확립,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6)</sup> Mules와 Somnez 등은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과 자긍심 고양, 교육적 목표와의 연계, 주요 매력요인 제공을 통한 관광객 증대, 지역의 문화적·레크레이션 자원의 확장,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7)</sup> 이런 요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경험의 영속성과 주인의식(ownership)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sup>78)</sup>

75) Tourism Canada, *An Analysis and Inventory of Selected Tourism Events/Festivals/Celebrations* (Ottawa: Author, 1988), p. 18.

76) D. Getz, *op. cit.*, (1991), p. 58.

77) T. Mules, "A Special Event as Part of an Urban Renewal Strateg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 1 (1993), pp. 65-67; S. F. Somnez, S. Backman & L.W. Allen, "Crisis Management for Event Tourism,"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 1 (1993), pp. 110-120.

78) T. A. Delamere & T. D. Hinch,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Social Impact of

이상과 같이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요인들이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진단과 고찰은 활성화되지 못하였거나, 지역축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다. 이를테면, 소음, 혼잡성,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 지역사회의 사회적·여가 습관의 변화(예를 들면, 축제를 외면하고 지역사회를 떠나게 되는 것), 문화유산의 훼손(vandalism)과 폭력행위(hooliganism),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부적절한 분배로부터 야기되는 집단상호간의 분열(divisiveness) 등을 들 수 있다.<sup>79)</sup>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영향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80)</sup> 지역사회 기반 축제에 대한 경제적 영향보다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적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치 역시 양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축제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sup>81)</sup>

Tourism Canada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 지역축제가 사회적 실패를 가져오게 되면, 축제를 지원하는 정부나 주민들의 명성과 이미지는 손상된다고 말하였다.<sup>82)</sup> 그렇다고 하여 축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만을 부각시키고 우려한다면 지역사회와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축제를 통해 얻는 금

---

Community Festivals," *Presentation at the Eigh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Ottawa: Canadian Association of Leisure Studies, May, 1996). pp. 65-68.

79)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1 (1993), pp. 79-86; G. N. Soutar & P. B. McLeod, "Residents' Perceptions on Impact of the America's Cup," *Annals of Tourism Research*, no. 20 (1993), pp. 571-582; S. F. McCool & S. R. Martin,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3 (1994), pp. 29-34.

80) R. Butler,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and Recreation," *Conference Proceedings from the Second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Toronto: Ontario Ministry of Culture and Recreation, 1979). pp. 204-228.

81) B. L. Driver, P. J. Brown & G. L. Peterson,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1991), pp. 89-97.

82) Tourism Canada, *An Analysis and Inventory of Selected Tourism Events/Festivals/Celebrations* (Ottawa: Author, 1989), p. 12.

정적 효과를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로부터 발산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지역 사회의 매력 요인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sup>83)</sup>

지역사회에서 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Getz와 Butler의 주장과 같이,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가 비용을 지출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되며, 사회적 영향은 실제적 비용과 이익을 결정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는 경우에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축제를 통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설명하기 어려우며 덜 유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만약 사회적 영향을 양적으로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외부성(externalities)<sup>84)</sup>과 선택된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둔 정치적 인기만을 다루고자 한다면, 축제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잃게 되고 말 것이라 경고하였다.<sup>85)</sup>

지역사회 혹은 축제 주관기관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는 반면,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sup>86)</sup>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에게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과 불이익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축제 주관 및 주관하는 기관들과 지역주민들은 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런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

83) Longson(1989)는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축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사람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개인의 웰빙(well-being), 개인들의 상호작용 관계, 전통, 생활양식,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체성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M. Longson,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Impacts of a Festival on the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aterloo: University of Waterloo), 1989, p. 5.

84) Getz(1991: 313)은 외형성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소음,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혼잡,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소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주체자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이익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생태적 파괴와 오염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매년 관광객의 유입 증가의 결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조직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관광산업과 축제 주체자들이 얻은 것이 있지만,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5) T. A. Delamere & T. D. Hinch, "Community Festivals: Celebration or Sellout," *Recreation Cabada*, vol. 52, no. 1 (1994a). p. 26-29.

86) D. Getz, *op. cit.*, (1991). p. 65.

### 제3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지역축제와 관련 선행연구

##### 가. 국내 선행연구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과 직접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장주는 진도영등재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이미지에 대한 측정척도 개발하였다. 그는 30개의 측정 이미지 평가 속성 중 7개 요인(이용성, 유희성, 신기성,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과 30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측정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차별화 내지 특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sup>87)</sup> 이장주의 연구는 관광특산축제에 초점을 두고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시장변수와 관광형태 시장변수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고호석은 10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선택속성과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즉 지역축제가 참가 관광객들의 지역축제를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속성과 지역축제 참가 후 만족하는 속성들을 밝혀냄으로써 어떤 이유로 지역축제를 선택하고, 어떤 속성에 만족하는 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축제 선택속성 중 재방문의사의 원인이 어떠한 요인에서 오는지를 파악하였다.<sup>88)</sup> 함영덕은 지역축제이벤트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사회영향요인, 미시적 영향요인, 거시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정도를 중요성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sup>89)</sup>

---

87) 이장주,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1998), pp. 93-96.

88) 고호석, “지역이벤트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1999), p. 141.

89) 함영덕,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2001), p.

민병호는 문화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축제가 관광자중심의 서비스품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아래, 서비스품질의 속성요인과 구성차원을 체계화하고 관광자와 제공자가 지각한 서비스품질의 영향과 차이가 기회의 품질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내부마케팅전략과 경험의 품질인 관광자만족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sup>90)</sup>

정강환은 백제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객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부여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제의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분석하였다. 그는 분석결과에서 축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제시하였다.<sup>91)</sup>

이장주는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요인으로 검증된 화합성, 유희성, 친교성, 탈일상성, 신기성, 문화성이라는 6개 축제참여동기모형을 인구통계학적변수와 관광형태적 특성에 따른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sup>92)</sup>

김선기는 향토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에서 향토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가져올 수 있는 기제로 보고, 향토자산의 활용과 축진을 위해 제도적 법령을 제정하고, 유사 인접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협약 등을 통해 지역축제를 공동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토자산을 세계적 상품으로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간 상호교류를 통해 축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sup>93)</sup>

박소연은 지역축제별 기획요인이 고객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각 지역 관광자원과 지역축제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특산품이 개발되어야 하고, 민간주도 및 관광기획전문가 의한 축제프로그램이 마련되

---

230.

90) 민병호, “한국 문화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0), p. 1.

91) 정강환, “백제문화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객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배재대 사회과학연구』, 제13집, (1995), pp. 178-179.

92) 이장주,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3), pp. 73-74.

93) 김선기, 전제서, pp. 178-180.

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sup>94)</sup>

이밖에 안경모는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을 위한 선택행동의 연구, 안종윤은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모형에 관한 연구, 이경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sup>95)</sup>

## 나. 외국 선행연구

다음은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Mohr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South Carolina주의 Greenville에서 독립기념일 주말에 열리는 ‘독립주말열기구’라는 열기구 축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기구축제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통해 축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Mohr et al.의 연구결과, 축제참여 유형으로 사회화, 가족/함께함, 흥미로움/유일함, 탈출, 축제 참신함 등 5개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sup>96)</sup>, 이 결과는 Uysal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sup>97)</sup>

Getz는 캐나다 Alberta주의 Calgary시가 자랑하는 해마다 7월 5일부터 열흘동안 개최되는 카우보이 로데오형 대축제인 ‘캘거리 스탬피드’의 관광객에 대한 면접조사 와 캘거리 지역주민 그리고 외부지역의 원거리 관광객들을 분리하여 연령과 방문그룹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지역에서 온 원거리 방문객들이 캘거리 지역관광객들보다 연령대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의 행동특성과 참여동기 등을 분석하였다.<sup>98)</sup>

---

94) 박소연, “문화관광이벤트로서 지역축제별 기획요인이 고객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2003), pp. 109-110.

95) 안경모,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1994); 안종윤, “한국의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모형 정책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이경하, “관광객의 의사결정기준과 효용특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2).

96) K. Mohr, K. F. Backman, L. W. Gahan & S. J. Backman,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89-97.

97) M. Uysal, L. W. Gahan & B. Martin,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5-10.

98) D. Getz, “Case Study: Marketing The Calgary Exhibition and Stampede,” *Festival*

Andreas는 관광객이 왜 차별적 관광지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이미지와 관광프로그램의 질, 상품개발 정도에 따라 타지역 관광상품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들이 조직화될수록 상품 또한 정형화되어 모델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9)</sup>

Seyhmus와 McCleary는 관광이벤트의 고객선택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객이 보인 흥미와 선호도에 근거를 두고 관광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0)</sup>

#### 다.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상과 같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축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관광이벤트에 관한 외지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거나 또는 지역특산품을 판매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문화적 특성을 통한 유형적 산출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 연구의 내용을 보면, 축제의 방문동기 및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정강환, 이장주, Mohr et al., Uysal et al., Getz)와 지역축제를 방문하게 되는 선택적 속성 및 재방문 요인에 관한 연구(고호석, 박소연, 안경모, 안종윤, 이경하, Andreas, Seyhmus와 McCleary), 그리고 축제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이장주), 지역축제이벤트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함영덕), 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민병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147-156.

99) P. Andreas, "Why People Travel to Different Pla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8, (2001), pp. 164-179.

100) Seyhmus and K. W. McCleary,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6, no. 4 (1999), pp. 868-897.

지역축제는 유형적 산출물과 결과를 통해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축제의 의미와 성공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축제의 성공여부에는 축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인 사회적 효과 즉, 정신·심리적인 효과와 지역전통 환경에 대한 접근은 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수행하는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접근은 더욱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2-4> 선행연구 요약

연구내용	연구자
축제의 방문 및 참여동기	정강환(1996), 이장주(2003), Mohr et al.(1993), Uysal et al.(1993), Getz(1993)
지역축제 선택속성 및 재방문 요인	고호석(1999), 박소연(2003), 안경모(1994), 안종윤(1996), 이경하(2002), Andreas(2001), Seyhmus와 McCleary(1999)
축제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이장주(1998)
지역축제이벤트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함영덕(2001)
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	민병호(2000)

## 2.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가. 관광에 대한 사회사회의 반응

축제의 사회적 영향은 보편적일 수 없다.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감소되는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자의 견해와 주장을 살펴보면, Delamere는 축제가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과 리더)의 인식, 둘째는 축제 관련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원수준, 그리고 셋째는 특별한 축제정책의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sup>101)</sup>

특히 Doxey는 관광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 연구를 축제의 일반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개발하였다.<sup>102)</sup> 이 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영향은 계속 진화되고 변동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Doxey에 의한 <표 2-5>와 같은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자극에 관한 인과이론’은 근본적으로 선형관계에 있는데 반해, Bjorklind와 Philbrick이 <그림 2-1>과 같이 제시한 모델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인식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 <그림 2-1>와 같이 두 개의 모델은 지역주민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정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관광의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단순히 분류하고 있다는 데서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 모델들은 관광개발에 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맨 처음으로 도움을 준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

101) T. A. Delamer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1998),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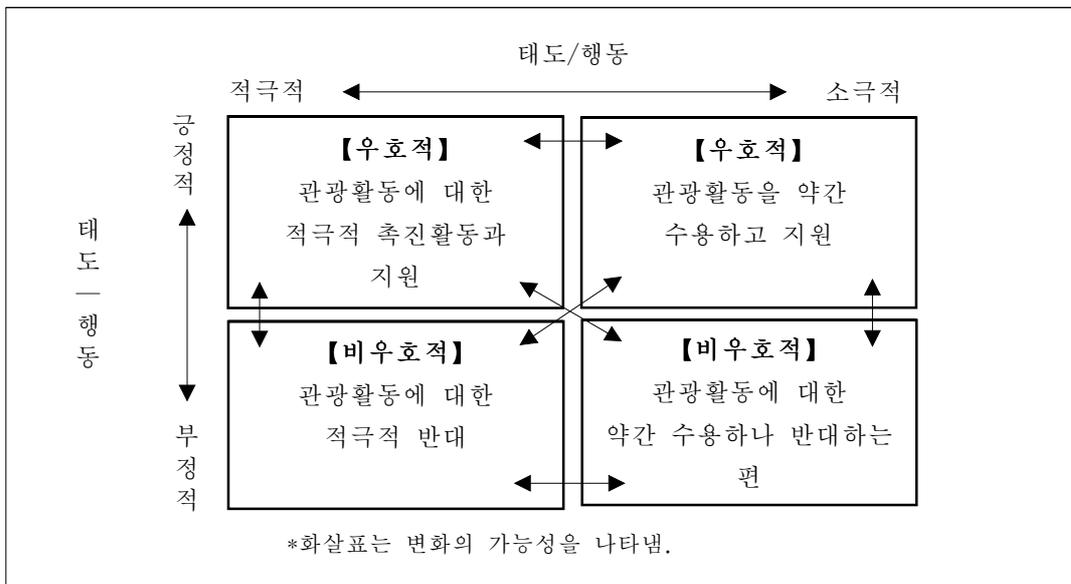
102) G. V. Doxey,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 *The Impact of Tourism: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San Diego: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75), pp. 57-72.

<표 2-5>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자극에 관한 인과이론

수 준	내 용
행복감 수준	지역주민은 열정을 가지며 관광객 방문에 감동된다. 지역주민들은 방문객을 환영하고 방문객과 상호 만족 감정을 가진다.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기회이며 관광객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좌우된다.
무관심 수준	관광산업이 팽창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짜증 수준	산업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시설물과 서비스의 확충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적대감 수준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을 모두 나쁜 선구자로서 본다.
최후 수준	처음 관광객을 끌어들이던 기억을 잊어버리지만, 혼란스런 상태에서 대중 넘어가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기존의 생태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해야만 한다.

자료: G. V. Doxey,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 *The Impact of Tourism: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San Diego: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75), pp. 57-72; A. Mathieson & G. Wall,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don: Longman, 1982). p. 45.

<그림 2-1> 관광활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반응



자료: E. M. Bjorklund, A. K. Philbrick, "Spatial Configuration of Mental Processes," In: M. Belanger, D.G. Janelle(eds.), *Building Regions for the Future* (Quebec: University of Laval, Canada, 1975), pp. 57-75.

그리고 AP와 Crompton은 <표 2-6>과 같이 관광 영향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03)</sup> 그들은 지역주민의 전략으로서, ①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열성적으로 수용하는 것(포용), ② 주민들은 관광에 관해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관용), ③ 주민들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불편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조정), ④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나는 것(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2-6> 지역주민의 전략

구 분	내 용
포 용	관광객들을 열성적으로 수용한다
관 용	주민들은 관광에 관해 이중성을 나타낸다
조 정	주민들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불편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한다
철 수	주민들은 임시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난다

자료: J. Ap & J. L. Crompton,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1 (1993), pp. 47-50.

이상과 같이 관광의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념적 논의를 더욱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를 도출하게 된 것은 AP가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를 통해,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축제로 연결해서 조망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104)</sup> 즉 지역주민들의 행동은 영향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05)</sup> 특별히, 주민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영향간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

103) J. Ap & J. L. Crompton,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1 (1993), pp. 47-50.

104) J. Ap, *op. cit.*, (1990), pp. 610-616.

105) J. Ap & J. L. Crompton,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1 (1993), pp. 47-50.

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06)</sup>

따라서 지역축제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나타난 이익과 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관광의 사회적 영향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기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전이자 관심사항이다.<sup>107)</sup>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각은 매우 중요한데, 의도된 영향이 예측한대로 나타났는지 또는 실제 영향을 측정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Mill과 Morrison은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108)</sup> Edgell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잠재적인 이익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9)</sup> Allen 등은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이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특정 국면만이 아닌 긍정적·부정적 양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sup>110)</sup>

Holloway는 지역축제의 의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 중의 하나를 범죄와 사회적 이상행동(deviant behavior)으로써 설명하였고,<sup>111)</sup> Mill과 Morrison 그리고 Mill

---

106) M. Fishbein & I. Ajze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W. Edwards, "The theory of decision-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51, (1954), pp. 380-417.

107) J. Ap, "Residents' Perceptions Research on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no. 4 (1990), pp. 610-616.

108) R. C. Mill & A.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an Introductory Text* (New York: Prentice-Hall, 1985). pp. 55-60.

109) D. L. Edgell,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pp. 12-47.

110) L. R. Allen, P. T. Long, R. R. Perdue & S. Kieselbach, "The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7, no. 1 (1988), pp. 16-21.

은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주인(host)과 손님(guest)간의 상호 작용 효과로 설명하였으며,<sup>112)</sup> Allen 등은 구체적으로 소음, 거리와 교통의 혼잡, 범죄, 그리고 물품가격 등의 증대, 가족구조의 붕괴, 실속 없는 경제, 지역주민의 분노 등의 요인을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에서 비롯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이라고 말하였다.<sup>113)</sup> Butler는 <표 2-7>과 같이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주장하였다.<sup>114)</sup> Butler는 부정적 사회적 영역으로 자원, 경제적 웰빙, 생활양식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구분하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표 2-7>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의 사회적 영향

영역	내용
자원 (Resources)	관광개발은 지역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온 자원을 방문객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황은 관광산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웰빙 (Economic Well-being)	어떤 지역에 방문객이 도착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 것 중의 하나가 가격인상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있어서, 대체로 지역주민보다는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경향이 많으며 그들이 풍족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제품, 서비스, 세금, 그리고 지대가 상승하게 된다.
생활양식 (life styles)	생활 질에 관한 영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지역주민은 생활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관광이 지역주민의 도덕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매춘과 관련된 범죄와 마약이 관광객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자료 : R. W. Butler, "Modelling Tourism Development: Evolution, Growth and Decline," In: Wahab, S. and Pigram, J. J.(eds)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1997), pp. 109-128.

111) J. C. Holloway, "The Guided Tour: A Sociological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8, no. 3 (1986), pp. 377-402.

112) R. C. Mill & A. M. Morrison, *op. cit.*, pp. 55-60; R. C. Mill, *Tourism : The International Business* (NJ :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0), pp. 45-69.

113) L. R. Allen, P. T. Long, R. R. Perdue & S. Kieselbach, *op. cit.*, pp. 16-21.

114) R. W. Butler, "Modelling Tourism Development: Evolution, Growth and Decline," In: Wahab, S. and Pigram, J. J.(eds)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pp. 109-128.

또한 뉴질랜드 관광홍보처(New Zealand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는 빠른 관광산업 성장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표 2-8>과 같이 제시하였다. 뉴질랜드 관광홍보처에 의하면, 관광산업을 의도로 하고 있는 축제의 경우 오랫동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삶의 방식과 빠른 성장 패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며, 정착주민과 진보적 사람들간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비즈니스가 퇴보 또는 쇠퇴하는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변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표 2-8> 관광산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

영역	내용
이동 (Displacement)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빠른 성장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사회적 문제 (Social Problems)	성장과 혼란은 이혼율, 어린이 학대, 비행, 범죄를 증가시켰으며 윤리규범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집단상호간 갈등 (Intergroup Conflict)	오랜 정착주민과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간, 진보적인 집단과 보수적 집단간, 생활양식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	성장과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였으며, 현재의 비즈니스를 퇴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를 촉진시켰다.

자료: New Zealand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 *Residents' Perceptions and Acceptance of Tourism in Selected New Zealand Communities* (Wellington: Author, 1988), p. 12.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이 초래하는 부정적 사회적 영향 혹은 불이익과 같은 비용을 비교해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축적될 수 있는 이로인 사회적 영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Lundberg는 지역축제의 의한 관광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였다.<sup>115)</sup> 그는 지역축제에 의한 관광이 가져다 주

115) D. Lundberg, *The Tourist Business(6th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p. 243.

는 이익으로서, ① 고용 선택기회 증대, ② 재산가치의 상승, ③ 세수입의 증가, ④ 연회 종류의 선택기회 증대, ⑤ 지역미화의 가능성, ⑥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의 편리성-도로확충, 공항 등, ⑦ 차량, 음식, 의류 등등 선택기회 증대 등을 제시하였고 비용으로서, ① 하수오물 처리, 학교·공항 등에 대한 치안과 소방보호, ② 모든 종류의 범죄증가 가능성, ③ 오염증가(대기, 소음, 물), ④ 공공접근성의 제한, ⑤ 이혼과 사회적 혼란 증대, ⑥ 음식, 주택임대료, 운송, 노동에 있어서 생활비용의 증가 등을 열거하였다.

<표 2-9> 지역사회에 있어서 관광의 이익과 비용

구 분	내 용
이 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선택기회 증대</li> <li>· 재산가치의 상승</li> <li>· 세수입의 증가</li> <li>· 연회 종류의 선택기회 증대</li> <li>· 지역미화의 가능성</li> <li>· 지역주민의 교통이용의 편리성-도로확충, 공항 등</li> <li>· 차량, 음식, 의류 등등 선택기회 증대</li> </ul>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오물 처리, 학교·공항 등에 대한 치안과 소방보호</li> <li>· 모든 종류의 범죄증가 가능성</li> <li>· 오염증가(대기, 소음, 물)</li> <li>· 공공접근성의 제한</li> <li>· 이혼과 사회적 혼란 증대</li> <li>· 음식, 주택임대료, 운송, 노동에 있어서 생활비용의 증가</li> </ul>

자료: D. Lundberg, *The Tourist Business(6th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p. 243.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지역민들만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외지관광객의 관람과 참여가 많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결국 축제행사 프로그램과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파생되는 영향이기 때문에 외지관광객들이 축제기간 동안 보여준 행태(behavior)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축제를 통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

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이 관광유지역량(tourism carrying capacity)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관광객의 유입과 관광 관련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수용성 내지 내성 정도를 의미한다.<sup>116)</sup> Wight는 수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imits of acceptable change)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에서의 누적적인 효과평가(cumulative effects assessment)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요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된 환경을 변동한다는 것이다.<sup>117)</sup> 지역주민들은 그들 지역사회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요소들에 대한 보호자들이다. 유지역량 또는 수용가능한 변화의 한계에 대한 개념에서 보면,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전체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한다.<sup>118)</sup> Lyon에 주장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연구하는 것이며 생활유형, 생활 질,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sup>119)</sup> 이런 주장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써 토대로 삼을 수 있다.

### 3. 선행연구의 평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새로운 축제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역축제를 관광자원으로

---

116) K. Cooke, "Guidelines for Socially Appropriate Tourism Development in British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1, no. 1 (1982), pp. 21-28; P. Murphy, *Tourism: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Methuen, 1985); A. M. O'Reilly, "Tourism Carrying Capacity: Concept and Issues," *Tourism Management*, vol. 7, no. 4 (1986), pp. 586-599; L. R. Allen, H. R. Hafer, P. T. Long & R. R. Perdue,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1, no. 4 (1993), pp. 27-33.

117) P. A. Wight, "Limits of Acceptable Change: a Recreational Tourism Tool for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A. J. Kennedy(ed.), In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in Canada: from Concept to Practice* (Calgary: Papers from the Fifteenth Symposium Held by the Alberta Society of Professional Biologists, 1994), pp. 159-178.

118) H. Whalen, "The Perils of Polling," in P. W. Fox, *Politics: Canada(4th ed.)* (Toronto: McGraw-Hill Ryerson, 1977), pp. 57-59.

119) L. Lyon, *The Community in Urban Socie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 7.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의도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축제 및 관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대부분은 축제의 내용 및 서비스품질, 축제의 참여동기와 재방문 요인 등 축제를 통한 관광의 부대효과를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에서도 단기적인 효과와 유형적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연구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무형적이고 정신가치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비용이 누적되고 비용의 효과가 지역사회사회의 유형적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이제는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척도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제4절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영향요인들을 선별, 구분하고 선별된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요인들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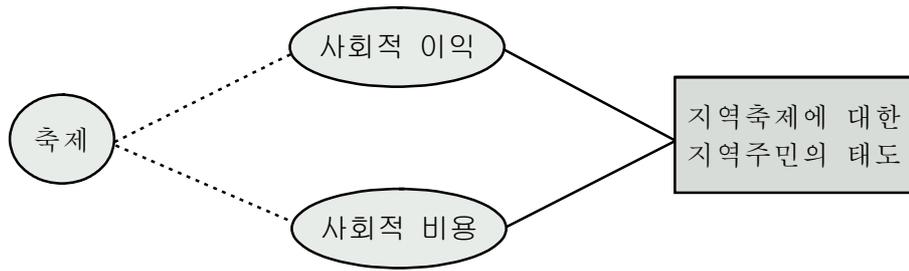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선택된 요인들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설명해줄 수 있고,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도 축제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개발을 위해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감정에 대한 반응 정도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영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 국면의 효과는 축제의 유형과 축제프로그램의 기획,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축제는 유형적이고 단기적 효과에 목적을 두고 개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경제적인 가시적 효과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물론 경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가지면서 정치적, 사회문화,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부수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축제가 어떤 유형과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축제의 실제모습은 부대행사, 상행위, 문화오락 등의 이벤트가 펼쳐지게 되고 많은 관광객이 일순간에 몰려들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본래의 기능과 정체성은 상실되기 쉽다. 지역사회의 본래의 기능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축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향유하게 되는 잠재적 비용과 유형적 이익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뿐더러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의 대립현상 또한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축제는 여러 국면의 효과로 나타나고 잠재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전통적·특산품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축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거나 간과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통문화를 왜곡,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이 무시되고,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해 축제효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측정은 다양한 측정기법과 접근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제의 사회적 영향 척도개발은 지역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는가를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전통을 유지하면서 유형적 효과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태도를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2-2> 분석모형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측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태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중 긍정적 측면은 사회적 이익으로, 부정적 측면은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Lindberg와 Johnson에 의하면 축제를 포함한 관광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석은 태도가 지각된 이익과 비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120)</sup> Dogan과 그의 동료들도 축제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축제는 지역사회의 결속력, 사회적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여를 한 반면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1)</sup> 이 같은 연구는 그동안 축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동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 근거가 되며, 축제의 유형적 효과보다 무형적 효과인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확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으로 본 연구도 Dog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연장선에서 경제적 이익 외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한정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의 태도나 지각을 통한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모형을 <그림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120) K. Lindberg & R. L. Johnson, *op. cit.*, pp. 402-424.

121) G. Dogan, K. Kyungmi & U. Muzaffer, *op. cit.*, p. 177.

## 제3장 조사설계

### 제1절 측정문항의 탐색

#### 1. 척도개발의 배경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된 방법들은 Lankford와 Howard, Mayfield와 Crompton이 사용한 척도와 비슷하며 Bearden과 그 동료들, McDougall과 Munro 그리고 Churchill이 추천한 절차와 유사하다.<sup>122)</sup>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먼저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이끌어 냈으며, 측정문항의 최초 목록은 전라남도 보성군 축제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문항들은 크론바하 알파계수( $\alpha$ )를 통해 선별하였으며 문항별 상관계수를 통해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측정의 차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대(expectancy)와 가치(value) 진술문을 반영하는 척도의 완전성을 검증하였다.

#### 2. 측정문항 개발 절차

축제는 방문객을 빠르게 유치시키는 형태이자 지역사회 활동을 가장 빠르게 촉진

---

122) W. O. Bearden, R. G. Netemeyer & J. E. Teel, "Measurement of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5, (1989), pp. 4373-4381; W. O. Bearden, R. G. Netemeyer & M. F. Mobley, *Handbook of Marketing Scales: Multi-Item Measures for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1993); G. A. Churchill,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6(Feb.), (1979), pp. 64-73.

시키는 행사 중의 하나이다.<sup>123)</sup>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차별적 특징을 내세워 크고 작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팽창시켜 나가고 있으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축제의 성공기준은 크게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발전이 사회적 발전을 선도하고 유인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가는 각 지역사회의 여건과 주민들의 여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어 왔었다고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수적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덜 유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결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sup>124)</sup>

축제의 영향을 경제적 가치 및 기준에 초점을 두는 경우 그 성과 및 효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측정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사회적 기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가치 문제와 장기적이고 정신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관광의 영향 연구에 토대를 두면서 심리측정학적 기반절차를 이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도 그동안 관광 분야에서 적용해 왔던 측정도구를 빌려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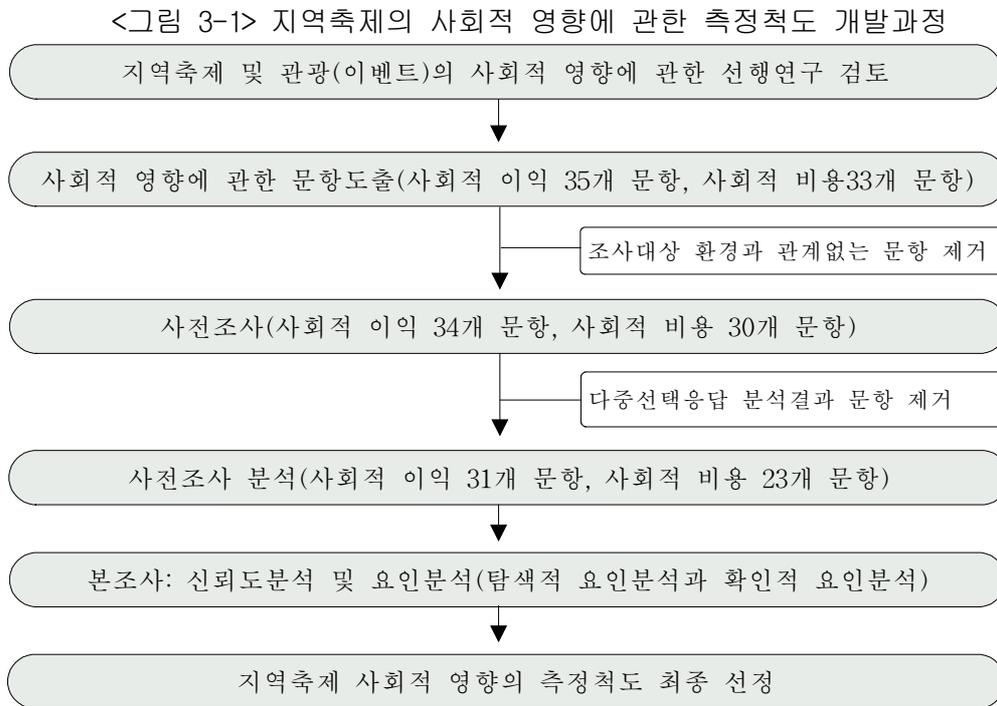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단계의 방법론이 활용된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측정항목의 목록을 생성하고, 생성된 항목을 검사 및 선별하는 작업이

---

123) C. Gunn, *Tourism Planning* (New York: Taylor and Francis, 1988), p. 5.

124) D. Getz, *op. cit.*, (1991), p. 21.

수행된다. <그림 3-1>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척도 개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은 2단계로 수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척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 문항 선발과 선발된 측정문항을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처음에는 항목 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검토를 통해 측정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측정문항 개발을 위해, 그리고 척도를 선별·세련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수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요인분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영향(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익이라고 나타내는 하위요인들, 즉 문화적/교육적 이익, 삶의 질의 관심, 지역사회 자원 관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일반적 요인과 하위요인들에 대한 설문은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축제를 주관하는 주최자와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측정문항의 탐색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태도 측정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크게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동안 관광 및 이벤트에 관한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표 3-1>과 <표 3-2>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표 3-1>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이익 문항 목록

- 
- 생각의 일체감과 공유(Delamere, 1993)
  - 지역사회 자긍심 확립(Delamere, 1993; Weaver & Robinson, 1989)
  - 관광 활성화(Delamere, 1993)
  - 가족 활동(Delamere, 1993)
  - 사회적 상호작용(Delamere, 1993)
  - 새로운 조직 설립(Delamere, 1993)
  - 지역사회의 소유의식(Delamere, 1993)
  -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Delamere, 1993)
  - 공동의 목표 지향(Delamere, 1993)
  - 집단 상호간의 협력(Delamere, 1993)
  - 지역사회 정체성 확립(Delamere, 1993; Longson, 1989)
  - 자랑거리(Delamere, 1993)
  - 자원봉사 촉진(Delamere, 1993; Getz & Frisby, 1990)
  - 개최지(Delamere, 1993)
-

<표 3-1>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이익 문항 목록(계속)

---

- 지역주민의 활동감(Delamere, 1993)
- 문화유산(Delamere, 1993; Weaver & Robinson, 1989)
- 지역사회 활기(Delamere, 1993)
- 삶의 질(Butler, 1975; Getz & Frisby, 1990)
- 여흥 선택의 증가(Lundberg, 1990; Weaver & Robinson, 1989)
- 교육기회의 증가(Lundberg, 1990; Weaver & Robinson, 1989)
-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사회가 특징을 보여줌(Weaver & Robinson, 1989)
- 지역사회 이미지 향상(Weaver & Robinson, 1989; Getz & Frisby, 1990)
- 지역사회가 문화적 스킬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Weaver & Robinson, 1989)
-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Weaver & Robinson, 1989)
- 개인의 웰빙(Longson, 1989)
- 가족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Delamere & Hinch, 1996)
- 친목 도모(Delamere & Hinch, 1996)
- 축제 진행자 또는 종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Delamere & Hinch, 1996)

---

자료: T. A. Delamere, "Community Festivals: Asset or Liability," *Presentation at the 1993 Alberta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Banff: October, 1993); T. A. Delamer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1998), p. 51.

<표 3-2> 지역축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문항 목록

---

- 자원봉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Delamere, 1993)
- 주민생활에 대한 방문객의 생활 침해(Delamere, 1993)
- 지역사회 간의 경쟁 갈등(Delamere, 1993)
- 혼잡(Delamere, 1993)
- 시설물 남용/소란(Delamere & Hinch, 1993)
- 지역사회 소유의식 상실(Delamere, 1993)
- 지역사회 주민들의 퇴거(Delamere, 1993; Getz, 1991; Butler, 1975)
- 지역사회 내 경쟁 갈등(Delamere, 1993)
- 지원 메카니즘 남용(Delamere, 1993)
- 관례 파괴(Delamere, 1993; Butler, 1975)
- 지역사회 내 의견불일치(Delamere, 1993)
- 문화적 차이(Delamere, 1993)
- 틀에 박힌 지역사회 이미지(Delamere, 1993;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1993)
- 한정된 비전(Delamere, 1993)
- 지역사회 정체성 상실/부족(Delamere, 1993)
- 부정적인 규범(Delamere, 1993; New Zealand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 1988)
- 교통량 증가(Getz, 1991; Lundberg, 1990;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1993)
- 범죄 증가(Lundberg, 1990; New Zealand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 1988)
- 집단 간 갈등(New Zealand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 1988)
- 지역사회 여가습관 변화(Butler, 1975;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1993)
- 이익과 불이익의 불공평한 분배(Getz, 1991)
- 생태적 손상과 오염(Getz, 1991; Lundberg, 1990)
- 소란 증가(Delamere & Hinch, 1996)
- 지역사회 에너지 소비(Delamere & Hinch, 1996)
- 주민들의 축제 참여로 기존하던 일의 성과 부실(Delamere & Hinch, 1996)
- 방문객으로 인해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저하(Delamere & Hinch, 1996)

---

자료: T. A. Delamere, "Community Festivals: Asset or Liability," *Presentation at the 1993 Alberta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Banff: October, 1993); T. A. Delamer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1998), p. 52.

특히, Delamere(1998)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여, 전문가 집단의 패널을 통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에 관한

최종 설문문항을 <표 3-3>과 <표 3-4>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lamere(1998)가 제시한 설문문항을 토대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게 하는 척도도구 개발에 사용하고자 한다.

<표 3-3>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

- 
- ①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 ② 축제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방문하도록 하는데 좋다.
  - ③ 축제기간 동안에 가족 단위로 활동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 ④ 축제는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 ⑤ 축제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
  - ⑥ 새로운 지역사회 집단이 축제의 조직으로 거듭난다.
  - ⑦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소유의식을 갖게 한다.
  - ⑧ 나는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접하게 한다.
  - ⑨ 우리 지역사회는 축제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 ⑩ 지역사회 집단들은 축제를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도록 함께 일한다.
  - ⑪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 집단들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⑫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
  - ⑬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행사이다.
  - ⑭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⑮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준다.
  - ⑯ 축제는 지역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장소이다.
  - ⑰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여가시설이 증가된다.
  - ⑱ 축제가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⑲ 축제는 지역의 웰빙 감각을 갖도록 기여한다.
  - ⑳ 축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㉑ 매년 개최되는 축제는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증대시킨다.
  - ㉒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의 선택 폭을 증대시킨다.
  - ㉓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갖는다.
  - ㉔ 축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의 특징/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㉕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준다.
  - ㉖ 축제는 문화적 기능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㉗ 축제는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 ㉘ 새로운 생각을 축제를 통해 보여준다.
  - ㉙ 축제는 나의 웰빙에 기여한다.
  - ㉚ 축제는 가족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㉛ 친목은 축제 참여를 통해 강화된다.
  - ㉜ 나는 축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서 즐겁다.
  - ㉝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친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 ㉞ 나는 축제 참여를 통해 개인적 긍지를 느낀다.
- 

자료: T. A. Delamer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표 3-4> 지역축제의 사회적 비용

- 
- ① 축제는 자원봉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 ② 축제는 주민의 생활을 침해한다.
  - ③ 축제는 인접 지역 간 부정적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④ 축제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혼잡하다.
  - ⑤ 축제는 지역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도록 한다.
  - ⑥ 축제는 지역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 ⑦ 일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여 감각이 줄어든다.
  - ⑧ 축제는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 ⑨ 축제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실패감을 느낀다.
  - ⑩ 축제가 지역주민의 관습과 윤리를 파괴시키도록 한다.
  - ⑪ 축제가 지역사회 집단들간 의견불일치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 ⑫ 축제가 지역사회 내의 부정적 문화 측면을 부각시킨다.
  - ⑬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집단들간의 권한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 ⑭ 축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 ⑮ 축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약화되게 한다.
  - ⑯ 부정적인 규범은 축제 방문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⑰ 축제기간 동안 차량이 수용능력 이상으로 증가한다.
  - ⑱ 축제기간 동안 보행자 통행량이 수용능력 이상을 증가한다.
  - ⑲ 축제기간 동안 범죄가 증가한다.
  - ⑳ 축제기간 동안 좋지 않는 풍습이 증가한다.
  - ㉑ 축제기간 동안 비행이 증가되고 있다.
  - ㉒ 축제기간 동안 생태적 손상이 심하다.
  - ㉓ 축제기간 동안 쓰레기로 난잡하다.
  - ㉔ 축제기간 동안 소란이 심하다.
  - ㉕ 축제는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㉖ 축제 방문객의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 ㉗ 지역사회의 사람 혹은 집단들은 다른 것보다 축제로 인한 이익을 더 받는다.
  - ㉘ 지역사회의 사람 혹은 집단들은 다른 것보다 축제와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
  - ㉙ 외지인들은 지역사회 자체보다는 축제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 ㉚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매년 방문한다.
- 

자료: T. A. Delamer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1998), p. 54.

## 제2절 설문구성과 자료의 분석방법

### 1. 설문구성과 측정

본 연구조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설문은 크게 사회적 이익, 사회적 비용,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이익에 관한 설문은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중요성 정도’를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비용에 관한 설문은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한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23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9개 문항, 이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거주기간,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의 거리, 성별, 연령, 종사하고 있는 일, 축제참여횟수, 교육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up>125)</sup>

또한 이들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을 보면, 사회적 영향에 관한 설문은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이익을 측정하는 척도는 5점이 ‘매우 중요하다’ 1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이고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는 척도는 5점이 ‘매우 걱정된다’ 1점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구성 개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구체적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다.

---

125) 설문구성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측정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개인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t-검정(t-test)은 검정변수에 대해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할 때 이용하는 통계기법이고, 분산분석은 3이상의 집단간 하나의 검정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통계기법이다.

둘째, 측정문항의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cronbach's) 알파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공통속성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요약·축약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은 여러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자료의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factor)을 설명하는 통계분석기법으로서, 요인은 여러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으로서 연구모형에 대한 아무런 기존의 이론적인 구성이나 사전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인이나 개념을 추출해 내는 분석방법으로 잠재요인에 대한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경우 자료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인 요인분석이라고도 한다.<sup>126)</sup>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적재치를 산출하였다.<sup>127)</sup> 그리고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이겐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이겐값은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겐값이 1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28)</sup> 본 연구의 요인분석 역시 아이겐값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다음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

---

126)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서울: SPSS아카데미, 2001), pp. 173-174.

127) 요인적재량이 0.4이상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128) 일반적으로 아이겐 값을 1 이상인 요인들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각 요인이 1 변수의 분산 정도는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분산을 기준으로 경우에는 사회과학에서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선정한다.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서울: 학현사, 1999), p. 561.

적인 배경하에서 변수들간의 기존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와 사회적 영향(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가지는 평소의 감정과 느낌이 축제의 사회적 영향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제3절 조사방법과 표본의 특성

####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1차 예비조사(pilot survey)와 2차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인 1차조사는 2004. 12. 15~12. 22일까지 보성군 축제담당자 및 관련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의 설문문항에 대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판단)되는 질문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타당성 있는 문항개발을 위해 제시 문항에 대한 수정을 주문하였다. 사전조사를 응답결과를 토대로 척도문항으로서 유의미성이 작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한 후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5년 1월 한달 동안 보성군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단표출(judgement sampling)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연구들이 지역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의 이미지 정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지방문객이 아닌 지역축제가 열리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조사의 설문응답자들은 축제에 관심 여부를 떠나 축제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효과 또

는 부정적 효과를 주민들의 감정 및 태도로써 나타내도록 하였다.

## 2. 조사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지역사회 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전라남도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판단추출(judgement sampling)을 통해 설문응답자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600명(부) 배부에 555명(부)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92.5%이지만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35명(부)을 제외하면 실제 회수는 520명(부)이 되어 회수율이 86.7%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수된 설문응답자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52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 지역 보성군 거주기간을 보면 응답자 520명 중 3년미만 거주자 31명(4.0%), 3년-5년 거주자 20명(3.8%), 6년-10년 거주자 51명(9.8%), 11년-15년 거주자 29명(5.6%), 15-20년 거주자 59명(11.3%), 20년이상 거주자 332명(63.8%), 그리고 무응답이 8명(1.5%)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과 축제장소와의 거리에서는 1킬로미터 이내가 50명(9.6%), 5킬로미터 정도가 129명(24.8%), 10킬로미터 정도가 124명(23.8%), 20킬로미터 정도가 140명(26.9%), 30킬로미터 정도가 59명(11.3%), 그리고 무응답이 18명(3.5%)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응답자 520명 중 남자는 375명(72.1%)이고 여자는 127명(24.4%)이며 무응답이 18명(3.5%)을 차지하고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연령에 있어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30세-39세가 110(21.2%), 40세-49세가 138명(26.5%), 50세-59세가 123명(2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응답자 520명 중 일반주민이 208명(40.0%)으로 가장 많고 마을지도자(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개발위원)가 146명(28.1%), 공무원이 72명(13.8%), 사회단체임직원이 29명(5.6%), 학생이 24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축제참여횟수에서는 매번참여가 206명(39.6%), 3번-4번 참여가 116명(22.3%), 1번-2번 참여가 111명(21.3%), 5번-7번

참여가 66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의 응답분포를 보면 초등학교졸이 38명(7.3%), 중졸이 113명(21.7%), 고졸이 232명(44.6%), 초급대졸이 63명(12.1%), 대졸이상이 67명(12.9%)을 차지하고 있다.

<표 3-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분 류	빈도(명)	비율(%)
거주기간	3년미만	21	4.0
	3년-5년	20	3.8
	6년-10년	51	9.8
	11년-15년	29	5.6
	15-20년	59	11.3
	20년이상	332	63.8
	무응답	8	1.5
	계	520	100.0
측제거리	1킬로미터 이내	50	9.6
	5킬로미터 정도	129	24.8
	10킬로미터 정도	124	23.8
	20킬로미터 정도	140	26.9
	30킬로미터 정도	59	11.3
	무응답	18	3.5
	계	520	100.0
성 별	남자	375	72.1
	여자	127	24.4
	무응답	18	3.5
	계	520	100.0
연 령	30세미만	69	13.3
	30세-39세	110	21.2
	40세-49세	138	26.5
	50세-59세	123	23.7
	60세 이상	69	13.3
	무응답	11	2.1
	계	520	100.0

구 분	분 류	빈도(명)	비율(%)
종사하고 있는 일	공무원	72	13.8
	마을지도자	146	28.1
	축제추진위원	5	1.0
	일반주민	208	40.0
	학생	24	4.6
	사회단체임직원	29	5.6
	기타	22	4.2
	무응답	14	2.7
	계	520	100.0
축제참여 횟수	참여한 적 없음	13	2.5
	1번-2번	111	21.3
	3번-4번	116	22.3
	5번-7번	66	12.7
	매번 참여	206	39.6
	무응답	8	1.5
	계	520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38
중졸		113	21.7
고졸		232	44.6
전문대졸		63	12.1
대졸이상		67	12.9
무응답		7	1.3
계		520	100.0

## 제4장 사례분석

### 제1절 사례대상 축제의 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보성군을 대상으로 한다. 보성군에서 열리는 축제는 ‘보성다향제’, ‘보성소리축제’, ‘꼬막축제’, ‘전어축제’, ‘동로성 축제’ 등이 있다. 보성다향제와 보성소리축제는 보성군이 주관하고 꼬막축제, 전어축제, 동로성축제 등은 읍면이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소리축제와 읍면 축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보성군의 대표적인 축제이며 2004년, 2005년도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보성다향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보성소리축제는 매년 10월에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에서 근대 판소리 성지인 보성의 위상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판소리 문화의 계승 발전과 판소리 저변확대를 위하여 보성군이 개최하는 축제이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제들이 총 출연하는 천하제일 명창무대와 최우수상으로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행사가 매년 펼쳐지고 있다. 다향제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진한 녹차향기 속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객 참여 마당으로 소리난장이 열리기도 한다.

꼬막축제는 청정해역인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보성군의 대표 수산물인 벌교 꼬막의 소비활성화와 지역 특산품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벌교읍 번영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꼬막까먹기, 꼬막요리경연, 갯벌널타기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옛부터 전남 보성은 갯벌체험 관광지로서 꼬막, 짬뽕어, 맛 등 유용어패류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러한 수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값싸고 맛 좋고,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전어축제는 쪽빛하늘을 담은 가을바다와 싱그러운 초록 차밭이 천상의 풍경을 연출하는 ‘웰빙보성’에서 ‘집나간 며느리의 발길을 되돌린 전어’의 참맛도 즐기는 축제로, 매년 10월이면 보성군 회천면에서 전어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축제중

전어잡기 체험은 득량만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전어를 참가자들이 맨손으로 잡아서 즉석에서 구어 먹을 수 있으며, 전어요리 만들기, 전어회 무침과 돈배젓 담아가기 등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로성축제는 조성면 동로성지에서 백제가 멸망하자 나·당연합군에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세력이 일본으로 건너간 곳으로, 이별과 새로운 희망을 테마화한 동로성축제가 2년마다 한번씩 9월에 개최된다. 옛 선열들의 문화유산을 근거로 전통적인 문화축제를 개발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성면의 풍요로움과 문화 이미지를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동로성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신제, 떡만들기, 국악공연, 사물놀이, 페리글라이딩쇼,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지역화합 마당으로 엮어진다.

## 1. 보성다향제의 유래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보성은 옛부터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녹차를 만들어왔고, 지금도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보성군 별교읍 징광사지 주변 등 군 전역에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한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는 마을 이름이 다전(茶田)으로도 불리우고 있어 옛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29)</sup>

지금의 보성다원이 조성된 것은 1939년 차나무의 생육과 양질의 녹차생산조건인 사질양토, 강수량 등 차 재배 적지로 판명된 해양성·대륙성 기후와 맞물리는 활성산(구 학성산) 자락에 30ha의 차밭 조성을 시작으로 국내 녹차의 646ha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계단식 녹차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녹차의 효능이 현대인의 건강과 미용에 특효라는 과학적 입증으로 차에서 기능성제품, 식품류등 차산업으로 발전되었다.

최대의 차 생산지이며 차산업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자부심 속에서 지난 85년 5월 12일 “다향제”라는 이름의 차문화 행사를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다. 매년 다신제를 시작으로 차잎따기, 차만들기, 차아가씨선발, 다례시연,

---

129)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 <http://dahyang.boseong.go.kr/dahyang/index.html>

국제차문화페스티벌등 다양한 체험과 차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 보성다향제의 행사내용

보성다향제는 매년 5월 초순경(2005년 경우, 2005. 5. 5. ~ 5. 8. 4일간 개최) 보성군체육공원, 일림산, 대한다원일원, 대원사 등에서 열리는 보성군의 대표적 관광특산축제이다. 보성다향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보완 또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행사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화, 세계화를 표방하는 녹차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 차문화 교류전, 중국황실 다례시연, 일본차인 다신제 헌무, 국제명차 전시체험, 국제 명차선정 한국출품작 예선전, 국제차요리 전시체험, 중국·일본 차요리 전문가 초청 강습회, 국제 차문화·차산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 녹차하면 보성이라는 관광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3년 관광여행 전문사 투어익스프레스와 Daum여행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성 녹차밭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와 같이 다향제를 통해 관광보성의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자연환경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 축제상품으로 개발·촉진하고 있다. 보성을 상징하는 녹차밭의 자연관광상품이 다향제를 통해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째, 자연경관을 이용한 문화관광 축제의 전형적 모델로 정착시키고 있다. 녹차밭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축제와 녹차밭을 동시에 보고 즐기고 체험하면서 학습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한국을 대표하는 차문화·차산업 축제로 향상시키고 있다. 보성다향제는 일림산 철쭉행사, 차문화행사, 군민한마음 잔치로 나누어 주제에 걸맞은 행사로 치루

어냄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 관광 자원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립산 철쭉행사는 장관을 연출하는 100만평의 철쭉 군락지속에서 철쭉제례, 산사랑 리본달기, 일립산 생태표본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산자수려한 보성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 고찰 대원사는 주한 외교사절단의 템플스테이 등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문화관광자원으로써 2004년에 외신기자, 주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산사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어 민간차원의 행사진행이 축제의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차문화 행사는 보성다원을 중심으로 한 녹차밭과 주행사장인 보성체육공원 일대에서 다신제, 차잎따기 경연·체험을 시작으로 차만들기 경연·체험, 전국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한·중·일 차문화 교류전, 중국황실 다례시연, 들차회시연, 햇차 품차시연, 한국차아가씨 선발대회, 차문화·차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상설 프로그램으로 관(館)개념 중심의 전시코너를 마련 국제명차 전시전, 국제 차요리전시전, 보성녹차 전시·판매관 등을 운영하여 예전의 단순한 볼거리 행사 위주에서 시연, 체험코너, 휴식코너, 차에 대한 지식정보제공, 차를 생활에 접목시킨 차음식 전시 및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의 동선계획 반영으로 수준 높은 행사를 치루고 있다.

### 3. 보성다향제 자원

#### (1) 다원

보성은 한반도의 녹차밭이다. 보성에서 울포로 가는 산하는 녹차와 그 향으로 덮여있다. 사철 푸른 차밭은 사람의 눈길을 붙잡고 그 내음에 취하게 만든다. 삶에 지친 길손들은 오아시스 같은 이 차밭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연인들의 사랑은 차향처럼 더욱 짙어져 간다. 활성산 붓재를 중심으로 보성읍 봉산리와 회천면 영천리 일대의 산자락에 푸른 용단을 펼쳐놓은 듯한 대한다원, 몽중산 다원, 붓재다원 등 차밭이 조성되어 있고 삼나무 숲과 어우러진 계단식 녹차밭의 아름다운 경관은 황홀감을 더해

준다.

2005년 현재 보성군은 570농가에서 전국 차 생산량의 46.2%인 1,131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7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130ha를 신규 조성중에 있다. 녹차는 보성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 646ha에서 1,131톤을 생산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증대 등 5128억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있다.<sup>130)</sup>

## (2) 차 제품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키면서 관련 제품 개발에 노력한 결과 녹돈, 농축액, 클린상품 등 60여 품목을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개발하였으며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고 장수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능성 상품도 개발하였다. 또한 농림부에서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과 함께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 녹차와 인삼에 대한 품목을 고시하였다.

보성 녹차는 지리적 표시등록 전국 제1호로 업체·군청·품질관리원·차시험장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 지리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녹차의 품질향상과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지리적 명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2002년 1월 25일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sup>131)</sup>

## (3) 차밭관광

차는 우리 삶의 맛이고 정신이다. 차밭은 싱그럽고, 차맛이 그윽한 차를 정성껏 달여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차향과 함께 공감하는 차문화 자체가 남도의 맛이자 멋이다. 귀한 차밭은 전남을 찾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1위에 등극한 보성 차밭이다. 차밭은 새순이 완전히 솟아오르는 5~6월이 가장 제격의 진초록을 보인다. 이제는 4계절 구분 없이 차밭 관광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관광객은 5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계속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만5천평의 거대한 부지에 295억원

---

130) 보성군, 『보성녹차의 지역경제역할』, (2005), pp. 22-97.

131) 보성군,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수상사례집』, (2004), pp. 27-43.

으로 2007년까지 한국차와 판소리 테마파크를 완공할 예정이다.<sup>132)</sup>

#### (4) 해수녹차탕

보성군 울포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녹차탕은 바다의 속살 120m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물이 보성 녹차와 만나 지친 몸을 달래주는 전국 유일의 녹차 해수탕이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관절염, 신경통, 건성피부 보호와 피부병 예방 효과가 빼어난데다 탕속에서 보는 바다의 풍경이 색다른 느낌을 준다.<sup>133)</sup>

#### (5) 일립산 철쭉

일립산 철쭉행사는 소백산맥 남단 산자락에 100만평 규모의 철쭉군락지가 펼쳐져 장관을 연출하며 화사한 철쭉의 향연으로, 보성다향제 행사기간중 가족과 학생이 참여하는 꽃사랑 사진촬영대회, 산림문화 작품전시, 철쭉분재전시, 청소년 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일립산은 쪽빛 청정해역 득량만의 정겨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보성강 발원지로 알려진 곳으로 천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 제2절 측정도구의 검사와 선별

### 1. 측정도구의 사전검사

#### (1) 사회적 이익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 측정도구의 설문문항은 크게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사전조사는 2004. 12. 15~12. 22일 까지 보성군 축제담당자 및 관련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의 설문문항에 대해

---

132) 보성군, 『녹차와 소리의 고장 관광보성』, (2004), pp. 3-24.

133) 상계서, pp. 8-24.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판단)되는 질문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타당성 있는 문항개발을 위해 제시 문항에 대한 수정을 주문하였다.

사전조사에 의한 다중선택응답(multiple response) 결과, 사례비율 20% 미만(빈도 10명 미만) 3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을 보면, 'A\_16번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제가 제공하는 것', 'A\_28번 축제를 통해 나의 새로운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A\_29번 축제는 나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등이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이들 3개 문항을 제거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4-1> 사회적 이익에 관한 사전조사 분석결과

문항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A_01	20	3.3	50.0
A_02	24	4.0	60.0
A_03	37	6.2	92.5
A_04	15	2.5	37.5
A_05	24	4.0	60.0
A_06	20	3.3	50.0
A_07	19	3.2	47.5
A_08	27	4.5	67.5
A_09	20	3.3	50.0
A_10	13	2.2	32.5
A_11	17	2.8	42.5
A_12	15	2.5	37.5
A_13	28	4.7	70.0
A_14	27	4.5	67.5
A_15	14	2.3	35.0
A_16	7	1.2	17.5
A_17	12	2.0	30.0
A_18	28	4.7	70.0
A_19	10	1.7	25.0
A_20	15	2.5	37.5
A_21	10	1.7	25.0
A_22	10	1.7	25.0
A_23	15	2.5	37.5
A_24	22	3.7	55.0
A_25	31	5.2	77.5

문항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A_26	21	3.5	52.5
A_27	12	2.0	30.0
A_28	8	1.3	20.0
A_29	4	.7	10.0
A_30	19	3.2	47.5
A_31	14	2.3	35.0
A_32	8	1.3	20.0
A_33	21	3.5	52.5
A_34	12	2.0	30.0
계	599	100.0	1497.5

주: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은 본조사 설문문항에서 삭제하였다.

## (2) 사회적 비용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의 관한 사회적 비용의 사전조사 분석결과, 사례비율 10% 미만(빈도 4명 미만)인 문항을 제외하여 본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사례비율 20% 미만(빈도 10명 미만) 7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을 보면, ‘B\_8번 축제가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B\_10번 축제가 지역주민의 관습과 윤리를 파괴시킨다’, ‘B\_17번 축제 방문객 때문에 부정적인 풍습이 오히려 증가된다’, ‘B\_20번 축제기간 동안 범죄가 증가되는 것’, ‘B\_21번 축제기간 동안 좋지 않는 풍습이 증가되는 것’, ‘B\_22번 축제기간 동안 비행이 증가되는 것’, ‘B\_28번 축제 방문객의 유입으로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가 침해되는 것’ 등이다.

<표 4-2>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전조사 분석결과

문항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B_01	15	5.2	37.5
B_02	4	1.4	10.0
B_03	13	4.5	32.5
B_04	11	3.8	27.5
B_05	32	11.1	80.0
B_06	20	7.0	50.0
B_07	16	5.6	40.0
B_08	2	.7	5.0

문항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B_09	10	3.5	25.0
B_10	2	.7	5.0
B_11	11	3.8	27.5
B_12	6	2.1	15.0
B_13	4	1.4	10.0
B_14	11	3.8	27.5
B_15	18	6.3	45.0
B_16	7	2.4	17.5
B_17	3	1.0	7.5
B_18	15	5.2	37.5
B_19	9	3.1	22.5
B_20	0	0.0	0.0
B_21	3	1.0	7.5
B_22	2	.7	5.0
B_23	9	3.1	22.5
B_24	29	10.1	72.5
B_25	5	1.7	12.5
B_26	4	1.4	10.0
B_27	13	4.5	32.5
B_28	3	1.0	7.5
B_29	4	1.4	10.0
B_30	6	2.1	15.0
계	287	100.0	717.5

주: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은 본조사 설문문항에서 제거하였다.

## 2. 측정도구의 분석

### 가. 측정도구의 선별방법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진라남도 보성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록>과 같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알파( $\alpha$ )계수를 통해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였다.<sup>134)</sup> 크론바하 알파계수의 유의성에 대해 Peter와 Churchill은 0.75이상,<sup>135)</sup> Kehoe는 0.5이상,<sup>136)</sup> Novak과 Mitchell은 0.6이상,<sup>137)</sup> 그리고 Nunnally는 0.7이상<sup>138)</sup>을 유의적 계수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에 대해 0.6이상을 유의적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다음은 측정문항을 선별하고 각 측정문항에 대한 차원을 사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측정척도를 개발하는 절차에 사용되는데,<sup>139)</sup> 특히 요인분석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은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측정문항의 가능성 차원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sup>140)</sup> 그리고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 즉, 요인이 설명하는 주성분의 양이 1이상이 되는 곳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 즉, 요인이 설명하는 주성분의 양이 1이상이 되는 곳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요인수에 따른 고유값의 변화를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스크리테스트(scree test)에 의해 요인의 수는 수직적 기울기에서 수평

- 
- 134) L. J. Cronbach,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 *Psychometrika*, vol. 16(Sept.), (1951), pp. 297-334; G. A. Churchill,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6(Feb.), (1979), pp. 64-73; S. V. Lankford & D. R. Howard, *op. cit.*, pp. 121-139.
- 135) J. P. Peter & G. A. Churchill,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Design Choices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Rating Scales: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3(Feb.), (1986), pp. 1-10.
- 136) J. Kehoe, "Basic Item Analysis for Multiple-Choice Tests," *Internet Document*, (1995), [http://www.cua.edu/www/eric\\_ae/digests/tm9511.htm](http://www.cua.edu/www/eric_ae/digests/tm9511.htm).
- 137) T. P. Novak, "Lecture Notes-Scale Development," *Internet Document*, (1996), <http://www.ogsm.vanderbilt.edu/marketing.research.spring.1996/vuonly/scale/construction.ascil>; M. Mitchell, "Handout 3.2: Measure of Internal Consistency," *Internet Document*, (1997), <http://psy1.clarion.edu/mm/RDE3/C3/C3handout32.html>.
- 138) J.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9), p. 125.
- 139) G. H. G. McDougall & H. Munro, *ibid.*; Novak, *ibid.*; DSS Research, "Process for Developing Valid and Reliable Measurements," *Internet Document*, (1997), <http://www.dssresearch.com/library/general/validity.htm>
- 140) J. Kim & C. W. Mueller, *Introduction to Factor Analysis: What it is and how to do i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a); J. Kim & C. W. Mueller, *Factor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Practical Issu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b); S. V. Lankford & D. R. Howard, *op. cit.*, pp. 121-139.

적 기울기로 전하는 되는 점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공통속성과 요인수가 결정되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잠재요인에 대한 구성변수의 이론모형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게 된다.

#### 나.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 선발

먼저 전체문항에 대한 표본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 측도 결과를 알아보았다. Kaiser-Meyer-Olkin 측도는 문항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들의 선정이 좋은가 좋지 못한가를 나타낸다. 즉 전체문항에 대한 표본적합도를 나타내준다. 여기에서 0.949이므로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는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요인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분석결과의 검정통계량이 16121.795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요인분석의 사용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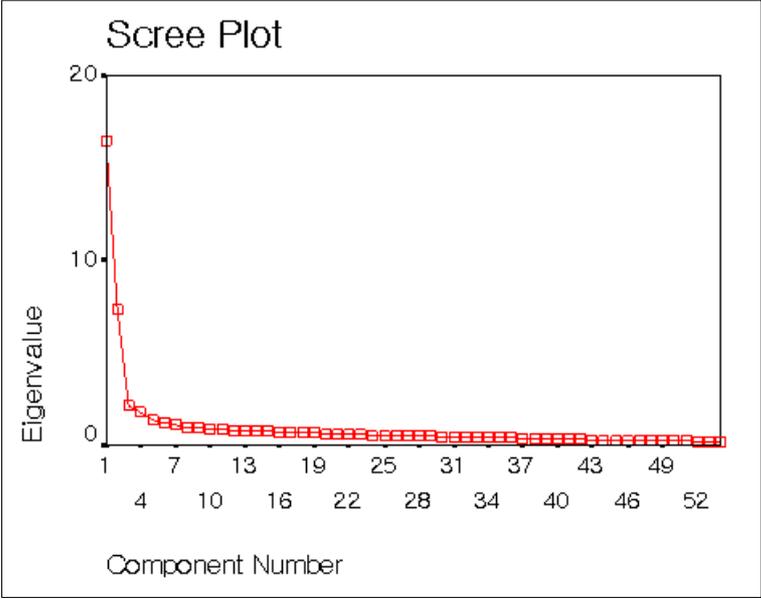
<표 4-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의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121.795
	자유도	1401
	유의확률	.000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위한 적합성이 판정되어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표 4-4>

와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요인수를 결정하는 아이겐값 1이상에서 <그림 4-1>과 같은 스크리테스트(scree test) 결과를 보니 요인1에서 수직으로 오다가 요인3에서 수평으로 전환되는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수는 3요인으로 결정된다.

<그림 4-1>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스크리테스트 결과



따라서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적재량 및 크론바하 알파분석을 나타내면 <표 4-4>와 같이 제시된다.

<표 4-4>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적재량

요 인	적재량
<b>(제1요인)</b>	
a13. 축제가 우리지역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게 되는 일	.662
a14.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591
a15. 축제가 우리지역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	.545
a16.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여가, 편의시설이 증가되는 일	.605
a17.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	.517
a18.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일	.667
a19. 우리지역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축제가 기여하는 일	.683
a20.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증대되는 일	.739
a21.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여가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일	.734
a22. 주민들이 축제참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는 일	.656
a23. 축제를 통해 내가 우리지역의 특색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일	.548
a24. 축제가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	.473
a25.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일	.587
a26.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770
a27. 축제를 통해 가족들이 다함께 여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742
a28. 축제 참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일	.709
a29. 내가 축제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면 즐겁게 되는 일	.746
a30.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친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일	.697
a31. 내가 축제참여를 통해 개인적 긍지를 갖게 되는 일	.650
<b>(제2요인)</b>	
b01. 축제가 자원봉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	.679
b02. 축제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일	.725
b03. 축제가 인접 지역 간 부정적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	.594
b04. 축제기간 동안 우리지역이 혼잡하게 되는 일	.491
b05. 축제기간 동안 지역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도록 만드는 일	.663
b06. 축제준비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	.678
b07. 매년 열리는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일	.465
b08. 축제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패감을 갖게 되는 일	.443
b09. 축제가 지역 여러 집단들간 의견불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일	.638
b10. 축제가 풍기문란을 부추기게 하는 일	.681
b11. 축제가 다른 인근 지역주민들을 외면당하게 하는 일	.739
b12. 축제로 인해 지역집단들간의 권한이 불균등하게 되는 일	.681
b13.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축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	.625
b14. 축제로 인해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일	.650
b15. 축제기간 동안 차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일	.511
b16. 축제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일	.616
b17. 축제기간 동안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	.544
b18. 축제기간 동안 쓰레기가 넘쳐나는 일	.671
b19. 축제기간 동안 소란스럽게 되는 일	.769
b20. 축제기간 동안 소음이 심하게 되는 일	.723
b21. 축제가 우리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	.611
b22.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	.637
b23.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좋지 않은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	.574

<표 4-4> 측정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적재량(계속)

	요 인			적재량
<b>(제3요인)</b>				
a01. 축제를 통해 지역의 여러 집단들이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일				.577
a02.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게 하는 일				.634
a03. 축제를 통해 외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방문하도록 하는 일				.534
a04. 축제기간 동안 가족이 단합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				.546
a05.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				.675
a06. 축제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일				.624
a07.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일				.646
a08.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접하게 되는 일				.500
a09.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				.553
a10.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				.563
a11.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상호 협력하게 되는 일				.451
a12. 축제가 우리지역의 고유성(정체성)을 높여주는 일				.45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아이겐값	16.394	7.320	2.161	
분산설명비율	30.358%	13.556%	4.001%	
Cronbach's α	0.9434	0.9332	0.9093	

<표 4-4>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분류된 요인적재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요인1’과 ‘요인3’은 “사회적 이익”에 해당되는 문항이고 ‘요인2’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산설명비율의 경우 제1요인은 30.358%, 제2요인은 13.556%, 제3요인은 4.001%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제1요인에서는 0.9334, 제2요인에서는 0.9332, 제3요인에서는 0.9093으로 제시되었다.

#### 다. 요인별 문항 식별

다음은 3개 요인의 차원을 사정하고, 각 요인별 하위요인을 선별·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 (1) 제1요인

사회적 이익에 관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표본적합도의 통계량은 0.96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의 검정통계량이 5429.063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제1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은 요인분석 사용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4-5> 제1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요 인		적재량
<b>(하위요인1: 문화/전통적 가치상승)</b>		
a13. 축제가 우리지역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게 되는 일		.621
a14.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597
a15. 축제가 우리지역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		.626
a16.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여가, 편의시설이 증가되는 일		.717
a17.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		.678
a23. 축제를 통해 내가 우리지역의 특색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일		.673
a24. 축제가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		.665
a25.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일		.760
<b>(하위요인2: 개인적 이익)</b>		
a18.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일		.724
a19. 우리지역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축제가 기여하는 일		.720
a20.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증대되는 일		.753
a21.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여가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일		.763
a22. 주민들이 축제참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는 일		.714
a26.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760
a27. 축제를 통해 가족들이 다함께 여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731
a28. 축제 참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일		.711
a29. 내가 축제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면 즐겁게 되는 일		.745
a30.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친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일		.768
a31. 내가 축제참여를 통해 개인적 긍지를 갖게 되는 일		.722
	(하위요인1)	(하위요인2)
아이겐값	9.442	1.225
분산설명비율	49.696%	6.445%
알파계수( $\alpha$ )	.8644	.9267

그리고 제1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이 2개의 분류되었는데, 하위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의 특성을 고려, ‘하위요인1’은 문화/전통적 가치상승으로, ‘하위요인2’는 개인적 이

익으로 생성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하위요인의 분산설명비율을 보면 “문화/전통적 가치”는 49.696%, “개인적 이익”은 6.445%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하위요인1에서는 0.8644, 하위요인2에서는 0.9267로 제시되었다.

## (2) 제2요인

사회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표본적합도의 통계량은 0.94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의 검정통계량이 5940.626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제2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은 요인분석 사용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을 선별·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비용 문항으로 구성된 제2요인은 3개의 하위요인 분류되었는데, 하위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의 특성을 고려, ‘하위요인1’은 축제의 의미 퇴색 걱정, ‘하위요인2’는 질서/환경 걱정, 그리고 ‘하위요인3’은 인적/물적자원 걱정으로 생성·확인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하위요인의 분산설명비율을 보면 “축제의 의미 퇴색 걱정”은 41.666%, “질서/환경 걱정”은 7.662%, 그리고 “인적/물적자원 걱정”은 5.622%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하위요인1에서는 0.8940, 하위요인2에서는 0.8691, 하위요인3에서는 0.8339로 제시되었다.

<표 4-6> 제2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요 인			적재량
<b>(하위요인1: 축제의 의미 퇴색 걱정)</b>				
b09. 축제가 지역 여러 집단들간 의견불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일				.589
b10. 축제가 풍기문란을 부추기게 하는 일				.682
b11. 축제가 다른 인근 지역주민들을 외면당하게 하는 일				.731
b12. 축제로 인해 지역집단들간의 권한이 불균등하게 되는 일				.679
b13.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축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				.634
b14. 축제로 인해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일				.657
b21. 축제가 우리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				.559
b22.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				.591
b23.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좋지 않은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				.502
<b>(하위요인2: 질서/환경 걱정)</b>				
b15. 축제기간 동안 차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일				.629
b16. 축제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일				.722
b17. 축제기간 동안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				.615
b18. 축제기간 동안 쓰레기가 넘쳐나는 일				.691
b19. 축제기간 동안 소란스럽게 되는 일				.801
b20. 축제기간 동안 소음이 심하게 되는 일				.760
<b>(하위요인3: 인적/물적자원 걱정)</b>				
b01. 축제가 자원봉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				.682
b02. 축제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일				.726
b03. 축제가 인접 지역 간 부정적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				.600
b04. 축제기간 동안 우리지역이 혼잡하게 되는 일				.473
b05. 축제기간 동안 지역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도록 만드는 일				.682
b06. 축제준비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				.723
b07. 매년 열리는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일				.496
b08. 축제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패감을 갖게 되는 일				.506
	(하위요인1)	(하위요인2)	(하위요인3)	
아이겐값	9.958	1.762	1.293	
분산설명비율	41.666%	7.662%	5.622	
알파계수( $\alpha$ )	.8940	.8691	.8339	

### (3) 제3요인

사회적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3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표본적합도의 통계량은 0.94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의 검정통계량이 2769.133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제3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은 요인분석 사용에 적합하

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은 별개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생성되었으며 문항의 특성을 고려, “공동의 이익”으로 생성·확인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요인의 분산설명비율은 50.221%이고 12개 문항에 대한 알파계수는 0.9093으로 제시되었다.

<표 4-7> 제3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

요 인	적재량
<b>(요인I: 공동의 이익)</b>	
a01. 축제를 통해 지역의 여러 집단들이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일	.705
a02.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게 하는 일	.724
a03. 축제를 통해 외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방문하도록 하는 일	.661
a04. 축제기간 동안 가족이 단합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	.656
a05.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	.738
a06. 축제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일	.710
a07.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일	.731
a08.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접하게 되는 일	.675
a09.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	.747
a10.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	.747
a11.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상호 협력하게 되는 일	.712
a12. 축제가 우리지역의 고유성(정체성)을 높여주는 일	.690
아이겐값 : 6.027	
분산설명비율 : 50.221%	
12개 문항의 신뢰성(Cronbach's $\alpha$ = 0.9093)	

### 3. 측정도구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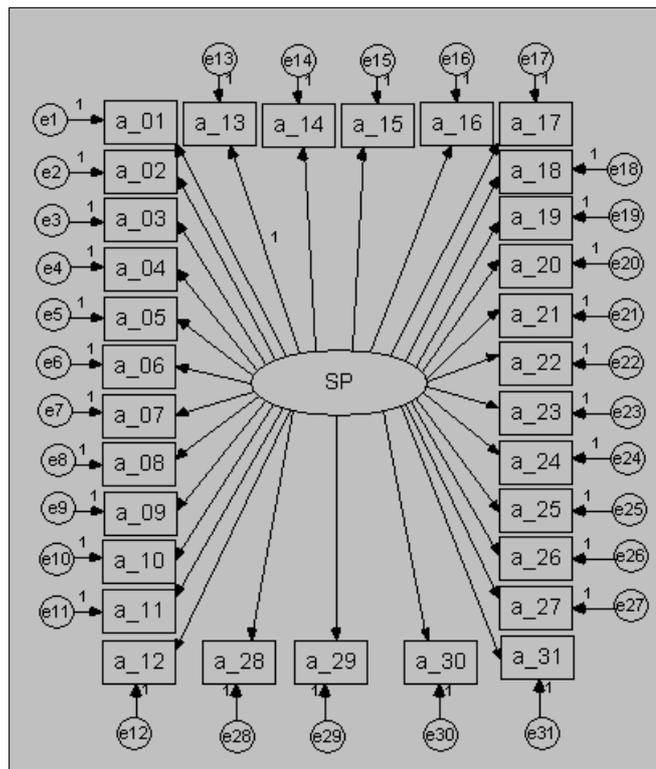
지금까지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계수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가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 주민들의 태도 측정문항을 선별·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 즉, 잠재요인(비관찰변수 또는 비측정변수)들을 선별하였는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문항(측정변수)들이 잠재요인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가. 사회적 이익

### (1) 사회적 이익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SP)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태도 측정문항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그림 4-2>와 같이 31개 문항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SPSS AMOS 5.0 통계패키지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2> 사회적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sup>141)</sup>



141) 각 변수의 오차항의 경로계수를 “1”을 갖는 이유는, 오차항의 경로계수에 “1”이 입력되지 않으면 마치 오차분산과 오차항의 경로계수를 구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계수, 2001:336-337). 또한 잠재요인은 측정되지 않는 변수(unmeasured variable, 또는 hypothetical variable)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척도가 된다. 즉 잠재요인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척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잠재요인의 측정단위와 그 원점을 임의적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단위를 간편하게 방법으로서, 측정변수와 외생요인간의 경로계수와 측정변수와 내생요인간의 경로계수의 각 행렬의 각열의 하나의 계수를 “1”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잠재요인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잠재요인에 적재되는 측정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변수에 임의적인 수치(여기서는 “1”)로 고정시켜 줄 수 있다(김계수, 2001: 338-339).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통계량<sup>142)</sup>을 비롯하여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 절대적합지수와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PCLOSE 등의 증분적합지수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절대부합지수의 경우 카이제곱통계량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 p값만 볼 때는 영가설을 기각시키기 때문에 측정모형과 분석자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카이제곱통계량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 $p=0.000$ )이 매우 작아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석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적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지표가 나타내는 값이 만족할만한 것이어도 그것이 다른 측면도 동시에 만족한 상태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지표가 동시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자료와 모형간에 합치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up>143)</sup> 따라서 카이제곱통계량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sup>144)</sup> 따라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

그렇다면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RMR(제공근평균제공잔차)이 0.041로 요구기준치에 적합하며 다른 부합지수인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

142)  $\chi^2$ (카이제곱)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이론을 근거하여 모형의 완전성,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카이제곱통계치가 크다는 의미는 적합도가 나빠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기각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귀무가설( $H_0$ ) : 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 대립가설( $H_1$ ) : 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지 않다.

143) 이기종,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전체모형 평가: 다면적 접근의 종합적 판단,” 『교육평가연구』, vol. 13, no. 2 (2000), p.170.

144) 조선배(2000)은 카이제곱통계량의 특성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구조방정식모델의 유일한 통계적 검증가능 통계량
-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 이 분석의 자유도는 모수에 가깝기 때문에 통계량이 자유도에 접근할수록 모수에 근접한다. 즉 신뢰수준이 비유의적일수록 통계량은 자유도에 가깝다.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카이제곱통계량은 표본크기가 100~200일 때.
- 표본크기가 100 이하일 때 실제 유의적 차이를 비유의적으로 제시하는 오류
- 표본크기가 200 이상일 실제 비유의적 차이를 유의적으로 제시하는 오류
- 연구자들이 비유의적 신뢰수준을 기대하는 유일한 통계량

조선배,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2000), pp.103-104.

(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근사하며 PCLOSE 지수 역시 0.000으로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 적합지수를 고려해 보면, 31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는 잠재요인인 사회적 이익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도구로 판명되었다.

<표 4-8> 사회적 이익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구 분	부합지수	최적기준	통계량
절대부합지수	· 카이자승통계량 : 자유도 (P-value)	p>0.05	1845.887 : 434 0.000
	· GFI(기초부합지수)	'1'의 근사치	0.759
	· AGFI(조정부합지수)	"	0.725
	· RMR(원소간평균차이)	p<0.05	0.041
충분부합지수	· NFI(표준적합지수)	'1'의 근사치	0.804
	· RFI(상대적합지수)	"	0.790
	· IFI(중대적합지수)	"	0.843
	· TLI(Tucker-Lewis 지수)	"	0.831
	· CFI(비교적합지수)	"	0.842
	· PCLOSE(p for test of close fit)	p≤0.5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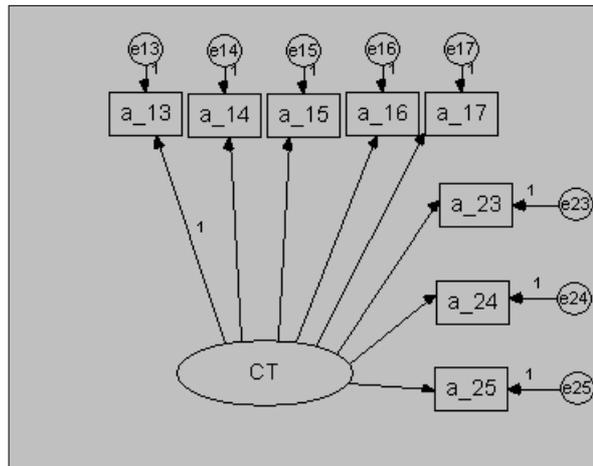
## (2) 하위요인

사회적 이익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각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그림 4-3>, <그림 4-4> 그리고 <그림 4-5>와 같은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4-9>에 제시된 분석결과 같이 '문화·전통적 가치상승 요인(CT)', '개인적 이익 요인(PP)', 그리고 '공동의 이익 요인(CoP)' 등에서 절대부합지수인 카이자승통계량과 p값만 놓고 보면은 측정모형과 실제분석자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밖에 다른 부합지수를 보면 요구기준치에 적합함으로써 7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는 '문화·전통적 가치상승 요인'으로, 11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는 '개인적 이익 요인'으로 그리고 12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는 '공동의 이익 요인'이라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도구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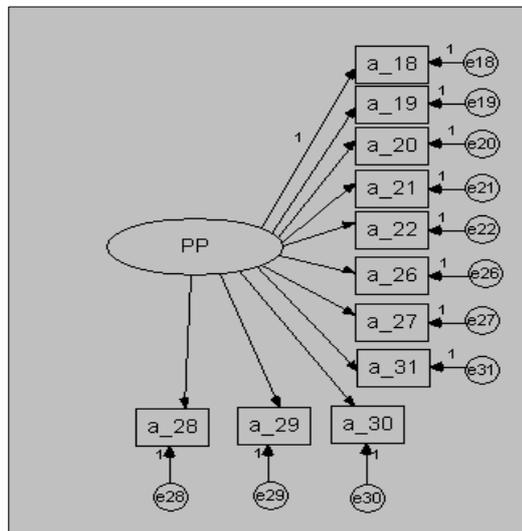
<표 4-9> 사회적 이익의 하위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통계량	절대부합지수					증분부합지수				
	$\chi^2$	p값	GFI	AGFI	RMR	NFI	RFI	IFI	TLI	CFI
문화/전통적 가치상승	125.41	.000	.941	.895	.032	.919	.887	.931	.903	.931
개인적 이익	194.03	.000	.935	.902	.026	.940	.925	.953	.941	.953
공동위 이익	222.33	.000	.930	.898	.029	.920	.903	.939	.925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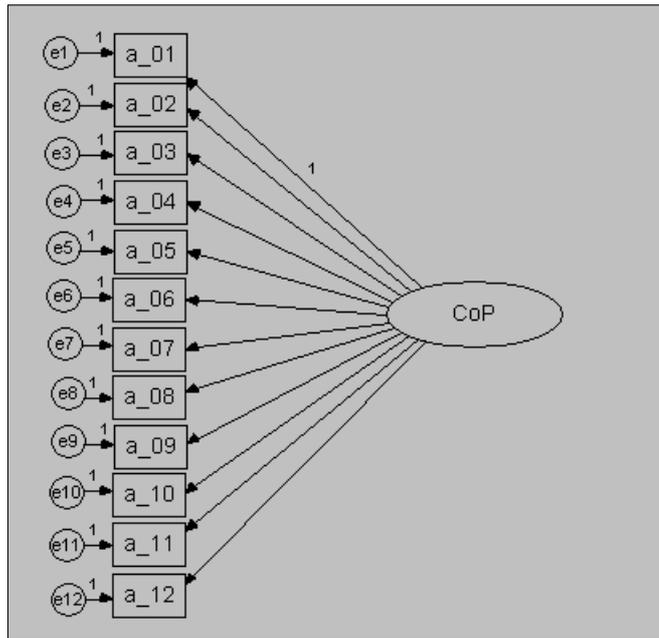
<그림 4-3> 문화·전통적 가치상승 요인에 관한 측정모형



<그림 4-4> 개인적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



<그림 4-5> 공동의 이익에 관한 측정모형



## 나. 사회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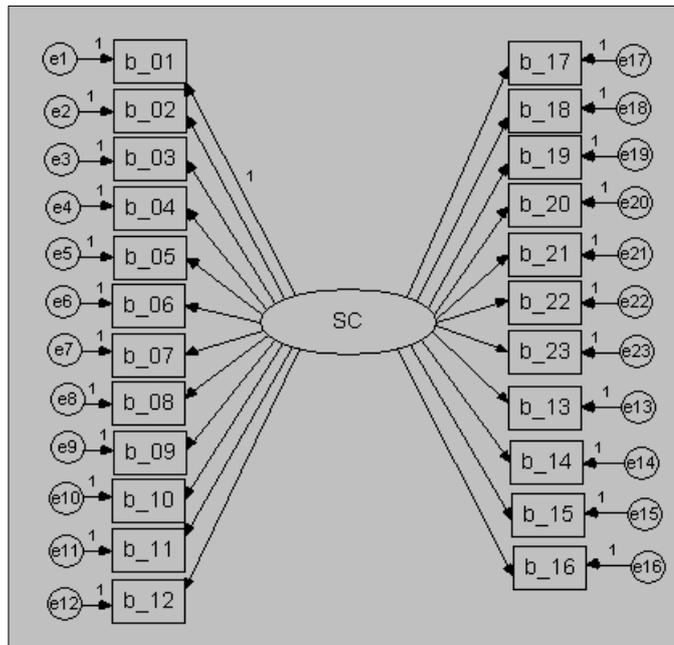
### (1) 사회적 비용

지역축제의 사회적 비용(SC)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태도 측정문항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그림 4-6>과 같이 23개 문항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절대부합지수의 카이자승통계량과 p값, 그리고 RMR 등 지수에서 요구기준치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다른 적합지수를 고려했을 경우, 23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는 잠재요인인 '사회적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도구로 확인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4-10> 사회적 비용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통계량	절대부합지수					증분부합지수				
	$\chi^2$	p값	GFI	AGFI	RMR	NFI	RFI	IFI	TLI	CFI
사회적비용	1435.45	.000	.769	.723	.065	.762	.739	.793	.771	.792

<그림 4-6> 사회적 비용에 관한 측정모형



(2)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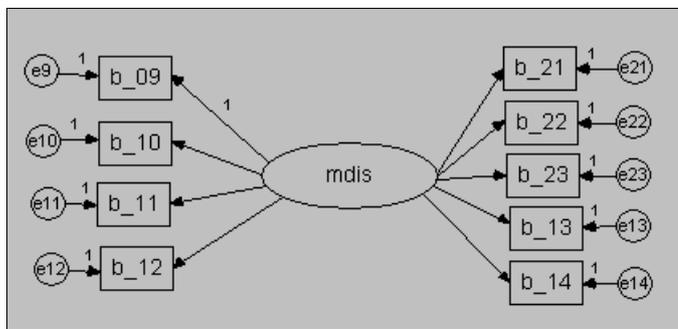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각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그림 4-7>, <그림 4-8> 그리고 <그림 4-9>과 같은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4-11>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같이 ‘축제의 의미퇴색 걱정 요인(mdis)’, ‘질서환경 걱정 요인(ord\_en)’, 그리고 ‘인적/물적자원 걱정 요인(PR)’ 등에서 절대부합지수인 카이제곱통계량과 p값만 놓고 보면은 측정모형과 실제분석자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밖에 다른 부합지수를 보면 요구기준치에 적합함으로써 9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측정변수는 ‘축제의 의미퇴색 걱정 요인’으로, 6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

정모형의 측정변수는 ‘질서환경 걱정 요인’으로 그리고 8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측정변수는 ‘인적물적자원 걱정 요인’ 이라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도구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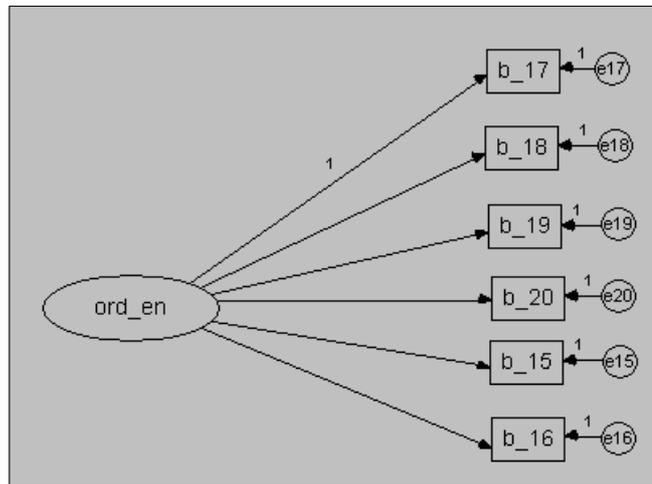
<표 4-11> 사회적 비용의 하위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통계량	절대부합지수					증분부합지수				
	$\chi^2$	p값	GFI	AGFI	RMR	NFI	RFI	IFI	TLI	CFI
측제의 의미퇴색 걱정	143.34	.000	.940	.900	.035	.932	.909	.944	.925	.944
질서/환경 걱정	122.88	.000	.923	.821	.049	.915	.858	.921	.867	.920
인적/물적자원 걱정	127.33	.000	.940	.892	.043	.906	.869	.920	.887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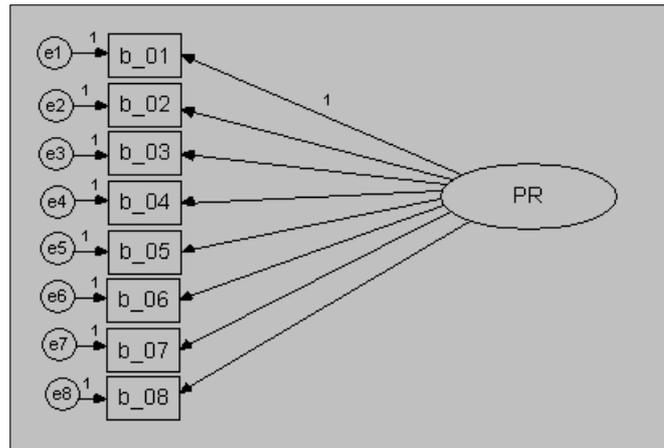
<그림 4-7> 측제의 의미퇴색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그림 4-8> 질서/환경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그림 4-9> 인적/물적자원 걱정에 관한 측정모형



### 제3절 기준변수의 평가

측정도구의 개발목적 중 하나는 선택된 기준변수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설명해줄 수 있고,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Lankford와 Howard가 관광영향에 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에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Delamere가 사용한 측정문항(기준변수)을 통해 사회적 영향 정도를 살펴본다.

#### 1. 기준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검증

##### 가. 기술통계량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하는 기준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분포특성을 보면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들의 비대칭도(skewness)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대칭도를 통하여 관측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비대칭도에 대하여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는  $Sk=0$ 이 되지만, 사회현상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간주되는  $Sk$ 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Sk>+1.0$ 이거나  $Sk<-1.0$ 일 때는 정규분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sup>145)</sup> 이와 같은 전제아래 모든 측정항목의 값이 이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분석을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준변수로 제시된 측정문항의 반응정도를 보면, 5점 척도 중 “보통(3점)” 약간 상회하는 편으로, 지역주민은 9개 기준변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생활에 대한 매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표 4-12> 기준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측 정 문 항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비대칭도 (skewness)
1. 나는 우리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에 만족한다	3.65	.91	-.45
2. 우리지역은 일가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3.70	.86	-.47
3. 나는 우리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3.33	.88	-.32
4. 나는 축제에 항상 참여하는 편이다	3.62	.86	-.40
5. 나는 우리지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39	1.06	-.40
6. 나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3.56	.91	-.26
7. 나는 우리지역 생활에 만족한다	3.43	.86	-.26
8. 나는 우리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친근감 있게 지낸다	3.65	.82	-.24
9. 나는 우리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3.35	.96	-.37

145) 김호정,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1998), pp. 107-108

## 나. 차이검증

개인별 또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서 기준변수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F-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간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Z-검증과 T-검증으로 구분되고, 세 집단 이상의 경우 F-검증을 사용하는데 Z-검증은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sup>146)</sup> 그러나 두 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T-검증을 사용하게 된다. T-검증은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그리고 F-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T-값과 F-값이 클수록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의수준이 0.05보다 적으면 95%의 신뢰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평균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sup>147)</sup> 본 분석에서는 성별에 대해서는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거주기간, 축제장소와의 거리, 연령, 종사 일, 축제참여 횟수, 그리고,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절차를 보면 먼저 집단의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등분산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살펴보았다.<sup>148)</sup> 둘째, 분산이 동질적인 경우 분산분석의 통계량 F-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분산이 동질적이지 않는 경우 대비검증으로 구한 통계량 t-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차이를 검증하였다.

### (1) 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 전남 보성군 거주지역 주민들이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

---

146) 김호정, 전계서, pp. 195-259.

147)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서울: 무역경영사, 1998), p. 282.

148) 분산분석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무작위적으로 추출되었으며 모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SPSS 프로그램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Levene 통계량이 사용된다. 강병서·김계수,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서울: 법문사, 1997), p. 162.

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3>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녀 두 집단간의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2(p값 0.003)를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t-검증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t-검정의 통계량을 보면, C02, C05, C06, C08에서 t값의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기준변수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기준변수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

측정문항	남자	여자	등분산검증		t값	p값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64	3.67	0.08	0.77	-0.33	0.736
C02	3.75	3.54	8.82	0.00	2.13	0.034**
C03	3.35	3.20	0.38	0.53	1.69	0.090
C04	3.65	3.50	0.14	0.69	1.62	0.106
C05	3.43	3.20	0.43	0.51	2.06	0.039**
C06	3.62	3.40	0.03	0.85	2.32	0.021**
C07	3.44	3.39	2.54	0.11	0.61	0.540
C08	3.70	3.50	1.48	0.22	2.29	0.022**
C09	3.39	3.20	0.29	0.58	1.94	0.053

\*\* p<0.05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있음

## (2) 연령별 차이분석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4>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령별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2와 C07을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보았으며, C02와 C07은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sup>149)</sup>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 차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sup>150)</sup> C02와 C07에 대해서는 평균에 차이가 나는 집단군을 설정하여<sup>151)</sup>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30세 미만보다는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14> 기준변수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측정문항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87	3.53	3.60	3.69	3.70	2.15	0.072	1.68	0.152
C02	3.58	3.70	3.73	3.68	3.80	3.21	0.013	1.02 (t값)	0.308
C03	3.04	3.35	3.31	3.48	3.39	1.03	0.389	2.80	0.025**
C04	3.45	3.62	3.66	3.66	3.72	0.86	0.484	1.04	0.385
C05	3.06	3.30	3.51	3.38	3.65	0.31	0.869	3.41	0.009**
C06	3.30	3.47	3.62	3.54	3.91	2.28	0.060	4.51	0.001**
C07	3.26	3.46	3.45	3.45	3.54	3.50	0.008	1.62 (t값)	0.108
C08	3.55	3.65	3.70	3.64	3.72	0.87	0.481	0.48	0.749
C09	3.07	3.32	3.36	3.51	3.45	0.83	0.502	2.53	0.039**

\*\*p<0.05

### (3) 지역 거주기간 차이분석

149) 분산분석에서는 모든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등분산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집단이 동일한 사례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SPSS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1999), pp. 263-264.

150) 최규정·손영남,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p. 174.

151) 본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을 1군의 집단으로, 30세 이상을 1군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거주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5>와 같이 제시하였다.

거주기간별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4를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보았으며, C04는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 차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C04에 대해서는 10년 미만을 1개 집단으로 10년 이상을 1개 집단으로 구분·설정하여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축제에 만족하는 사람은 대체로 5년미만 거주하는 사람과 2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고, 3년-5년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지역문제의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15> 기준변수에 대한 지역 거주기간별 차이검증

측정 문항	3년미만	3-5년	6-10년	11-15년	15-20년	20년이상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62	3.75	3.37	3.45	3.46	3.74	1.79	0.113	2.470	0.032**
C02	3.14	3.45	3.43	3.41	3.63	3.83	1.51	0.184	2.368	0.000**
C03	2.86	3.50	3.41	2.93	3.29	3.37	1.51	0.185	2.773	0.018**
C04	3.57	3.65	3.43	3.38	3.51	3.69	3.21	0.007	1.329 (t값)	0.184
C05	2.57	3.50	3.22	2.93	3.34	3.51	0.66	0.650	4.902	0.000**
C06	3.19	3.60	3.24	3.41	3.59	3.65	1.09	0.362	2.834	0.016**
C07	2.95	3.45	3.41	3.24	3.61	3.46	0.28	0.920	2.216	0.055
C08	3.33	3.70	3.53	3.45	3.58	3.72	0.92	0.464	1.833	0.105
C09	2.81	3.30	3.33	3.38	3.27	3.40	1.05	0.386	1.619	0.153

\*\*p<0.05

#### (4) 축제장소와의 거리 차이분석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집과 축제장소와의 거리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6>과 같이 제시하였다.

집과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의 거리별에 따라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2, C04, C06을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 보았으며, C02, C04, C06은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 차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C02, C04, C04에 대해서는 5킬로미터 이내와 10킬로미터 이상을 각각 1개 집단으로 구분·설정하여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16>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장소와의 거리별 차이검증

측정문항	1km이내	5km	10km	20km	30km이상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60	3.61	3.84	3.58	3.56	0.44	0.773	1.786	0.130
C02	3.64	3.55	3.87	3.72	3.68	5.28	0.000	2.328 (t값)	0.021**
C03	3.14	3.26	3.44	3.29	3.41	0.63	0.638	1.377	0.241
C04	3.62	3.51	3.84	3.54	3.56	2.66	0.032	1.498 (t값)	0.135
C05	3.08	3.21	3.56	3.41	3.58	1.41	0.228	3.297	0.011
C06	3.40	3.50	3.81	3.54	3.41	2.93	0.020	1.654 (t값)	0.099
C07	3.28	3.48	3.44	3.43	3.49	0.54	0.701	0.568	0.686
C08	3.56	3.62	3.73	3.65	3.63	1.31	0.262	0.471	0.757
C09	3.16	3.32	3.57	3.26	3.25	1.65	0.161	2.649	0.033**

\*\*p<0.05

거주기간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일가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제장소와의 거리는 축제만족, 축제참여, 애향심, 생활만족, 주민들과의 친근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5) 종사하고 일에 따른 차이분석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종사하고 있는 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7>과 같이 제시하였다.

종사하고 있는 일에 따라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1과 C02를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보았으며 C01과 C2는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 차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C01과 C02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그밖에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각각 1개 집단으로 구분·설정하여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종사하고 있는 일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축제만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마을이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축제참여 정도는 마을이장, 공무원, 일반주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현재 거주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과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마을이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남 보성군의 공무원과 마을이장이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17>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장소와의 거리별 차이검증

측정 문항	공무원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마을 개발 위원	축제 추진 위원	일반 주민	학생	사회 단체 임원	기타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67	3.62	3.03	3.45	2.12	3.45	3.28	3.04	3.17	2.57	0.009	-2.330 (t값)	0.022**
C02	3.55	3.57	3.13	3.56	2.49	3.59	2.93	3.33	3.34	3.35	0.001	-0.614 (t값)	0.541
C03	3.11	3.38	3.10	3.33	2.29	3.10	2.33	3.18	3.03	0.84	0.560	2.903	0.004**
C04	3.57	3.64	3.29	3.00	2.92	3.51	2.80	3.15	2.72	0.93	0.490	2.832	0.004**
C05	3.00	3.36	3.26	3.37	2.49	3.16	2.65	3.14	2.74	1.15	0.323	1.231	0.278
C06	3.35	3.64	3.23	3.22	3.12	3.35	2.86	3.44	2.82	1.54	0.139	2.348	0.017**
C07	3.35	3.37	3.49	2.95	2.76	3.22	2.80	3.08	3.01	1.40	0.193	1.349	0.217
C08	3.40	3.54	3.39	3.49	2.76	3.53	3.06	3.42	3.19	0.97	0.453	0.435	0.900
C09	3.25	3.40	3.23	3.05	1.98	3.07	2.44	3.04	2.78	0.46	0.882	2.374	0.016**

\*\*p<0.05

#### (6) 축제참여 횟수에 대한 차이분석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축제참여 횟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8>과 같이 제시하였다.

축제참여 횟수에 따라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측정문항 C01과 C02를 제외하고는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보았으며 C01과 C2는 각 집단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의 t값과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 차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C01과 C02에 대해서는 4번 이하와 5번 이상을 각각 1개 집단으로 구분·설정하여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축제참여 횟수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참여횟

수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18> 기준변수에 대한 축제참여횟수 차이검증

측정 문항	참여한 적이 없다	1-2번	3-4번	5번-7번	매번참여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46	3.41	3.49	3.73	3.87	7.18	0.000	4.817 (t값)	0.000**
C02	3.31	3.34	3.61	3.79	3.94	6.71	0.000	5.765 (t값)	0.000**
C03	3.31	3.05	3.36	3.47	3.40	0.54	0.706	3.732	0.005**
C04	3.54	3.22	3.57	3.53	3.92	1.38	0.240	13.855	0.000**
C05	3.00	3.22	3.32	3.27	3.58	1.67	0.154	3.122	0.015**
C06	3.23	3.23	3.63	3.56	3.73	0.91	0.457	6.527	0.000**
C07	3.08	3.13	3.40	3.61	3.58	1.00	0.406	6.620	0.000**
C08	3.54	3.40	3.58	3.70	3.82	0.83	0.506	5.384	0.000**
C09	2.85	3.04	3.33	3.33	3.57	0.12	0.974	6.876	0.000**

\*\*p<0.05

### (7) 교육수준의 차이검정

지역축제의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변수에 대해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19>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의 교육수준에 따라 축제의 일반적 감정에 대한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이에 대한 F-검증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기준변수에 대한 F-검정의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기준변수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검증

측정 문항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등분산검증		F값	p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값	p값		
C01	3.53	3.70	3.62	3.62	3.81	0.72	0.574	0.83	0.505
C02	3.63	3.67	3.69	3.71	3.76	1.23	0.297	0.17	0.952
C03	3.34	3.46	3.30	3.29	3.22	0.68	0.604	0.96	0.429
C04	3.55	3.70	3.54	3.65	3.81	1.59	0.175	1.61	0.169
C05	3.42	3.66	3.35	3.17	3.25	0.89	0.464	2.86	0.023**
C06	3.50	3.72	3.56	3.49	3.46	0.95	0.434	1.16	0.328
C07	3.34	3.50	3.41	3.56	3.36	1.44	0.218	0.72	0.576
C08	3.68	3.72	3.63	3.70	3.60	0.71	0.584	0.37	0.828
C09	3.32	3.57	3.23	3.32	3.49	0.35	0.250	2.71	0.029**

\*\*p<0.05

#### (8) 차이분석 요약

지금까지 지역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를 지역주민의 개인별·집단별 차이에 따라 살펴보았다. 차이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있어서 전남 보성군 지역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기고장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은 대부분은 태어나서부터 현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이 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근본적이고 생태적인 문제이고 각 가정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외형적 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30세 미만 젊은층보다는 30세 이상에서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으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젊은 층에게 지역축제와 관련된 일반적 감정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이 지역축제의 행사프로그램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고장에 대한 애항심이 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지역축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한 애항심이 발산되고 그것을 축제 이벤트와 연계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애항심과 정체성 고양은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 지역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유인책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환경적 특징을 개발, 보존하고 그것을 지역축제로 연계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집과의 거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일가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는 축제장소와의 거리는 축제만족, 축제참여, 애항심, 생활만족, 주민들과의 친근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거리는 축제의 일반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통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거리가 멀어서 축제에 대한 참여와 애정이 없을 것이라는 선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역축제의 범위는 확산될 것이고 또한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체성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공무원과 마을이장이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역축제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때 축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과 마을이장과 같은 지역의 주도사람들만이 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축제는 하나의 형식적 이벤트 행사에 그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에게 축제의 의미와 축제의 행사내용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상관성 분석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축제의 환경적 요소와 일반적 감정이 축제의 사회적 영향(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요인들이 지역축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제 관련 기준변수와 사회적 영향, 즉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상관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 가. 사회적 이익

먼저 지역축제의 환경적 요인과 축제의 일반적 감정의 기준변수가 사회적 이익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20>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이익은 지역축제의 환경적 요인과 일반적 감정을 나타내는 모든 기준변수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회적 이익에 대해 ‘지역축제의 개최에 만족’이  $r=0.56$ 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에 ‘축제에 항상 참여’가  $r=0.38$ ,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  $r=0.36$ , ‘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r=0.35$ , ‘주민들과의 친근감’이  $r=0.32$ , ‘지역생활에 만족’이  $r=0.31$ , ‘지역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r=0.29$ ,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가  $r=0.28$ , 그리고 ‘다른 지역을 떠나서 살지 않음’이  $r=0.16$ 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축제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자გი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활주체 및 의사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표 4-20> 사회적 이익과 기준변수의 상관분석

구분	사회적 이익	C_01	C_02	C_03	C_04	C_05	C_06	C_07	C_08	C_09
사회적 이익	1									
C_01	.56**	1								
C_02	.36**	.44**	1							
C_03	.29**	.34**	.26**	1						
C_04	.38**	.39**	.29**	.42**	1					
C_05	.16**	.16**	.23**	.36**	.34**	1				
C_06	.28**	.30**	.28**	.35**	.44**	.49**	1			
C_07	.31**	.34**	.24**	.42**	.38**	.35**	.52**	1		
C_08	.32**	.27**	.31**	.39**	.36**	.34**	.48**	.43**	1	
C_09	.35**	.23**	.22**	.49**	.43**	.43**	.43**	.43**	.46**	1

\*\* p<0.01

- C\_01. 나는 우리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에 만족한다.
- C\_02. 우리지역은 일가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 C\_03. 나는 우리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 C\_04. 나는 축제에 항상 참여하는 편이다.
- C\_05. 나는 우리지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C\_06. 나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 C\_07. 나는 우리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
- C\_08. 나는 우리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친근감 있게 지낸다.
- C\_09. 나는 우리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 나. 사회적 비용

지역축제의 환경적 요인과 축제의 일반적 감정의 기준변수가 사회적 비용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21>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유의수준은  $p < 0.01$ 에서 사회적 비용은 ‘지역축제의 개최 만족’과  $r = 0.18$ ,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과  $r = 0.18$ , ‘축제에 항상 참여’와  $r = 0.12$ , ‘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와  $r = 0.17$ 에서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과의 친근감’과 ‘지역생활에 만족’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와 ‘다른 지역을 떠나서 살지 않음’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는 유의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축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초래된다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지역의 거주환경이 일가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거주함으로써 지역전통과 특색에 맞는 일상의 기존질서 및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4-21> 사회적 비용과 기준변수의 상관분석

구분	사회적 비용	C_01	C_02	C_03	C_04	C_05	C_06	C_07	C_08	C_09
사회적 비용	1									
C_01	.11**	1								
C_02	.18**	.44**	1							
C_03	.06	.34**	.26**	1						
C_04	.12**	.39**	.29**	.42**	1					
C_05	.08	.16**	.23**	.36**	.34**	1				
C_06	.05	.30**	.28**	.35**	.44**	.49**	1			
C_07	.11*	.34**	.24**	.42**	.38**	.35**	.52**	1		
C_08	.10*	.27**	.31**	.39**	.36**	.34**	.48**	.43**	1	
C_09	.17**	.23**	.22**	.49**	.43**	.43**	.43**	.43**	.46**	1

\*  $p < 0.5$  \*\* $p < 0.01$

- C\_01. 나는 우리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에 만족한다.
- C\_02. 우리지역은 일가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 C\_03. 나는 우리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 C\_04. 나는 축제에 항상 참여하는 편이다.
- C\_05. 나는 우리지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C\_06. 나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 C\_07. 나는 우리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
- C\_08. 나는 우리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친근감 있게 지낸다.
- C\_09. 나는 우리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축제의 환경적 요소와 일반적 감정이 축제의 사회적 영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내용에 만족해야 하며, 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의 동향을 체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며,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지역토착주민들이 확립해 높은 질서환경이 파괴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요약과 분석결과의 함의

#### 1. 연구요약

관광의 영향에 대한 주민의 태도와 지각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부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으며,<sup>152)</sup> 계속해서 관광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논의도 더욱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제시되었고,<sup>153)</sup>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sup>154)</sup> 많은 연구자들은 축제의 사회적 영향 유형을 구분하고, 측정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무형적 속성을 지닌 측정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방법론적 논의를 토대로 접근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이나 축제의 영향에 대한 유형적 성과측정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왔을 뿐 무형적이고 동태적인 주민들의 태도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많은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들

---

152) S. F. McCool & S. R. Martin, *ibid.*; G. N. Soutar, & P. B. McLeod, *ibid.*; J. D. Johnson, D. J. Snepenger & S. Akis,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 no. 3 (1994), pp. 280-284.

153) B. King, A. Pizam & A. Milman, "Social Impacts of Tourism: Host Percep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0, (1993), pp. 650-665.

154) S. M. Gorney & J. A. Bisser, *ibid.*; C. M. Hall & J. Hodges, "The Party's Great, but What About the Hangover? The Housing and Social Impacts of Mega Ev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2000 Sydney Olympic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vol. 4 (1996), pp. 13-20.

이 어떻게 기대하고 인식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탐색을 위해서 관광 및 이벤트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문항을 빌려왔으며 그것들을 토대로 사전조사와 현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요인을 확인하였다.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의 탐색결과, 사회적 영향을 크게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증분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이익은 ‘문화전통적 가치’, ‘개인적 이익’, 그리고 ‘공동의 이익’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적 비용은 ‘축제의 의미퇴색 걱정’, ‘질서환경 걱정’, 그리고 인적물적자원 걱정’ 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를 지역주민의 개인별·집단별 차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기고장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령에 있어서 30세 미만 젊은층보다는 30세 이상에서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집과의 거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종사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마을이장이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환경적 요소 및 일반적 감정과 축제의 사회적 영향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내용에 만족하며 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회적 비용과 유의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지역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지역토착주민들이 확립해 높은 질서환경이 파괴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 2. 분석결과의 함의

축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는 상당히 복잡하다. Lankford와 Howard에 의하면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은 관광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배경으로 하는 모델과 틀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sup>155)</sup> 관광 및 축제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표준화된 심리 측정원리에 토대를 두고 개발된 태도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sup>156)</sup>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문항 생성과정을 다루었으며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해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측정문항 목록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검토된 많은 문헌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요인 목록을 직접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지역축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사회적 영향 유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개별 측정문항들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음 ‘사회적 이익’ 문항 목록은 대부분 면대면 상호작용의 집단상황에서 “공유”, “연대감”, “친목”, “만남”,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이익 문항 목록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문항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이익을 나타내는 많은 문항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느낌은 지역에 기반을 둔 축제로부터 나타나는 다른 유형의 이익(예, 경제적 이익)보다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국면을 요약하면, 첫째, 최초 지역사회 사회

---

155) S. V. Lankford & D. R. Howard, *op. cit.*, pp. 121-139.

156) S. V. Lankford & D. R. Howard, *ibid.*; L. Lindberg & R. L. Johnson, *op. cit.*, pp. 44-60.

적 영향으로 선발된 측정문항은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구분된 문항의 집단은 협력적 혹은 공동체에 관한 이슈와 개별적·개인적 이슈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초기 문항 목록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즐거움과 비교하여 자신의 집과 혹은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많은 손실은 본래 재정적(財政的)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불이익’ 용어로 포괄되고,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축제의 사회적 비용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전남 보성군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측정도구로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축제의 사회적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문항 생성 절차를 통해 가능성 있는 측정문항들을 도출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검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측정문항들을 선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지역축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지역의 특색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과 관련되는데 반해, 사회적 비용 또는 불이익은 지역의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전통적인 질서와 환경이 파괴되는 즉, 지역특색의 원형보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축제의 잠재적 비용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반응은 NIMBY(not in my backyard)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 즉, 전통과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단기적·외형적 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체성 고양은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 지역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유인책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환

경적 특징을 개발, 보존하고 그것을 지역축제로 연계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기준변수가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지역토착주민들이 확립해 높은 질서환경이 파괴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지역축제와 관련된 일반적 감정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이 지역축제의 행사프로그램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지역축제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때 축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축제를 관계되는 사람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의미와 행사내용을 알리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내용에 만족해야 하며, 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의 동향을 체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섯째로, 지역축제가 획일적이고 진행되고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영향과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무시한다면 지역축제는 의도하지 않던 방향을 진행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많은 혼란은 물론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혼이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깊은 감정까지도 담을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로서는 경제적·사회적 목표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목표의 균형은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s)를 조장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축제 프로

그램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와 주민들은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 리더와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이 경제적 목표인가? 축제를 통해 경제적 목표와 사회·문화적 목표가 양립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민의 태도 측정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나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리더와 축제 주관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선호요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축제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간의 적절한 균형과 합의를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에서 측정문항으로 구분된 두 개의 주요 요인, 즉 지역축제의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비용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과 비교해보면, 개념적 차원과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슈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본 연구대상에 있어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하위요인의 측정문항은 미래 연구에서 더욱 심층적인 탐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들 하위요인은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틀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태도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법은 측정문항의 유지 또는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접근법은 심리측정원리와 함께 이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접근법도 완전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측정문항이 제거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측정도구 즉, 측정문항의 문항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157)</sup> 그렇기 때

문에 측정문항의 단순화와 명확화 작업이 요구되며 응답자들의 이해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설문을 통해 측정했던 것처럼, 설문응답은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늦게 나타난 결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설문측정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의 결함을 보완하고 더욱 더 세련된 문항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빈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였지만, 문항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이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축제 주최 및 주관자, 지방정부, 재정후원자,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기준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국면으로 착각하여 사회적 영향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많은 관련 단체와 지방정부들이 한결같이 경제적·재정적 성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효과가 중요하고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확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 보성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측정문항을 선별하였다. 지역축제의 유형이 전통문화, 문화예술, 지역특산, 그리고 종합축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전남 보성군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지역특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선별·확인된 측정도구가 다른 유형의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연구에서는 도시형과 농촌형 그리고 축제유형별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면 측정도구의 적용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157) P. L. Erdos, *Professional Mail Surveys* (FL.: Robert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83); T. W. Mangione, *Mail Surveys: Improving the quality* (CA: Sage Publication, 1995). p. 87.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1. 단행본

- 강병서·김계수.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서울: 법문사, 1997.
-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2001.
- 김선기.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SPSS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1999.
- 김천배 역. 『바보祭』. 서울: 현대사상사, 1982.
- 김호정.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1998.
- 이상일. 『축제와 마당극』. 서울: 조선일보사, 1986.
- 이은봉. 『놀이와 축제』. 서울: 주류, 1982.
- 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장정룡.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축제』. 강원도: 한국문예진흥원, 1996.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8.
- 조선배.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2000.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1999.
- 최규정·손영남.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 2. 논문

- 고호석. “지역이벤트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1999.
- 김명자. “민속놀이 속에 비춰지는 향취.” 『불교사상』, 불교사상사, 1986.
- \_\_\_\_\_. “민요의 본질과 연구의 필요성.” 『서정범박사회갑기념논문집』, 서울: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1986.

- \_\_\_\_\_.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제2집 (1992), pp. 233-255.
- \_\_\_\_\_.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12집 (1995), pp. 185-186.
- \_\_\_\_\_. “한국세시풍속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8.
- 민병호. “한국 문화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0.
- 박소연. “문화관광이벤트로서 지역축제별 기획요인이 고객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2003.
- 송시열. “광주·전남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3, p. 391.
- 안경모.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1994.
- 안종윤. “한국의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모형 정책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이경하. “관광객의 의사결정기준과 효용특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2.
- 이기중.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전체모형 평가: 다면적 접근의 종합적 판단.” 『교육평가연구』, vol. 13, no. 2 (2000), p. 170.
- 이장주.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3.
- \_\_\_\_\_.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1998.
- 이정덕. “지역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vol. 5, no. 2 (2003), p. 12.
- 임상오.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한국문화경제학회』, vol. 7, no. 1 (2004), pp. 51-75.

- 장주근. “세시풍속의 역사적 고찰.” 『한국민속논고』, 서울: 계몽사, 1986.
- \_\_\_\_\_.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1982), pp. 30-33.
- 장철수.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추최 세미나 초록집』, (1994), p. 57.
- 정강환. “백제문화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객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배재대 사회과학연구』, 제13집, (1995), pp. 178-17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 함석중. “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 함영덕.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1.

### 3. 기타자료

- 문화관광부. 『2004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 \_\_\_\_\_. 『보도자료』, 2004. 12. 27 <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
- \_\_\_\_\_.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관광부, 1996.
- 보성군. 『보성녹차의 지역경쟁력역할』, 2005.
- \_\_\_\_\_. 『녹차와 소리의 고장』, 2004.
- \_\_\_\_\_.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수상사례집』, 2004.
-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 <http://dahyang.boseong.go.kr/dahyang/index.html>

## □ 외국문헌

### 1. 서적

- Bearden, W. O., R. G. Netemeyer & M. F. Mobley. *Handbook of Marketing Scales: Multi-item measures for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1993.
- Bowles, R. T. *Social Impact Assessment in Small Community*. Toronto: Butterworths, 1981.
- Butler, R. W. "Modelling tourism development: Evolution, growth and decline." In: Wahab, S. and Pigram, J.J.(eds)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 Cosman, M. P. *Medieval Holidays and Festiva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1.
- Driver, B. L., P. J. Brown & G. L. Peterson.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1991.
- Eagly, A. & Chaiken, S. *Psychology of Attitude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93.
- Edgell, D. L.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 Eliade, M. *Man and Sacred*. New York: Haper and Row Publishers, 1974.
- Erdos, P. L. *Professional Mail Surveys*. FL.: Robert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83.
- Fishbein, M. & I. Ajze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 Getz, 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 Gunn, C. *Tourism Planning*. New York: Taylor and Francis, 1988.
- Hinch, T. D. "Sustainable tourism in the urban jungle." in P. E. Murphy(ed.). *Quality Management in Urban Tourism: Balancing Business and Environment-Proceedings*. Victoria: University of Victoria, November, 1994.
- Kim, J. & C. W. Mueller. *Factor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Practical Issues*. Beb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
- \_\_\_\_\_. *Introduction to Factor Analysis: What it is and how to do it*. Beb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
- Lundberg, D. *The Tourist Business*(6th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 Lyon, L. *The Community in Urban Socie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 Poplin, D. E.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MacMillan, 1979.
- Rousseau, M. F. *Community: The tie that binds*. MD.: Lanham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Mangione, T. W. *Mail Surveys: Improving the quality*. CA: Sage Publication, 1995.
- Martinez-Brawley, E. E. *Perspectives on the Small Community: Humanistic view for Practitioners*. MD.: Silver Spring, NASW Press, 1990.
- McDougall, G. H. G. "Scaling and attitude measurement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in J. R. B. Ritchie, C. R. Goeldner(2nd ed.).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 Handbook for Manager and Researchers*. New York: Wiley, 1994.
- Mill, R. C. & A.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an introductory text*. New

- York: Prentice-Hall, 1985.
- Mill, R. C. *Tourism: the international business*. NJ.: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0.
- Murphy, P. *Tourism: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Methuen, 1985.
- Nunnally, J.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9.
- Selznick, P. *The Moral Commonwealth: Social Theory and the Promise of Community*. CA.: University Press of California, Berkeley, 1992.
- Turner, V. "Introduction." In V. Turner (ed.), *Celebration: Studies in festivity and ritual*.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2.
- Weaver, G. D. & R. Robinson. *Special Event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of Missouri, 1989.
- Whalen, H. "The perils of polling." in P. W. Fox, *Politics: Canada*(4th ed.). Toronto: McGraw-Hill Ryerson, 1977.
- Willmott, P. *Community Initiatives: Patterns and Prospect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9.

## 2. 논문

- Allen, L. R., H. R. Hafer, P. T. Long & R. R. Perdue.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1, no. 4 (1993), pp. 27-33.
- Allen, L. R., P. T. Long, R. R. Perdue & S. Kieselbach. "The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7, no. 1 (1988), pp. 16-21.
- Andreas, P. "Why People Travel to Different Pla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8, (2001), pp. 164-179.
- Ap, J. "Residents' Perceptions Research on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no. 4 (1990), pp. 610-616.
- Ap. J. & Crompton, J. L.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1 (1993), pp. 47-50.
- Bearden, W. O., R. G. Netemeyer & J. E. Teel. "Measurement of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5, (1989), pp. 4373-4381.
- Churchill, G. A.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6(Feb.), (1979), pp. 64-73.
- Cooke, K. "Guidelines for Socially Appropriate Tourism Development in British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1, no. 1 (1982), pp. 21-28.
- Crompton, K. L. & S. L. McKay.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4, no. 2 (1997), pp. 425-439.
- Cronbach, L. J.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 *Psychometrics*, vol. 16(Sept.), (1951), pp. 297-334.
- Davidson, W. B. & P. R. Cotter.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6, no. 7 (1986), pp. 608-619.
- Delamere, T. A.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1998.
- Delamere, T. A. & T. D. Hinch. "Community Festivals: Celebration or Sellout." *Recreation Cabada*, vol. 52, no. 1 (1994a). p. 26-29.
- \_\_\_\_\_.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Festivals." *Presentation at the Eigh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Ottawa: Canadian Association of Leisure Studies, May,

1996.

- Dogan, G., K. Kyungmi & U. Muzaffer. "Perceived Impacts of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by Organizers: An Extension and Validation." *Tourism Management*, vol. 25, no. 2 (2004), pp. 171-181.
- Doxey, G. V.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 *The Impact of Tourism: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San Diego: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75.
- Edwards, W. "The Theory of Decision-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51, (1954), pp. 380-417.
- Etzioni, A. "What Community? Whose Responsiveness?." *The Responsive Community*, Vol. 1, no. 2 (Spring 1991), pp. 5-8.
- Gartner, W. C. & D. F. Holecek. "Economic Impact of an Annual Tourism Industry Exposi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0, no. 2 (1983), pp. 199-212.
- Getz, D. "Case Study: Marketing The Calgary Exhibition and Stampede."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147-156.
- . "Impacts of Tourism on Residents' Leisure: Concepts, and a Longitudinal Case Study of Spey Valley, Scotland."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4, no. 2 (1993), pp. 33-44.
- Getz, D. & W. Frisby. *A Study of the Role of Municipalities in Developing Festivals and Special in Ontario*. Warerloo: University of Warerloo,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Occasional Paper, no. 16 (1990), p. 1.
- Hall, C. M. & J. Hodges. "The Party's Great, but What about the Hangover? The Housing and Social Impacts of Mega Events with Special Reference

- to the 2000 Sydney Olympic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vol. 4 (1996), pp. 13-20.
- Havitz, M. E. "Consumer Behavior and Tourism: Review and Extension of Four Study Area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vol. 3, no. 3 (1994), pp.37-57.
- Hinch, T. D. & T. A. Delamere. "Native Festivals as Tourism Attractions: A Community Challenge." *Journal of Applied Recreation Research*, vol. 18, no. 2 (1993), pp. 131-142.
- Holloway, J. C. "The Guided Tour: A Sociological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8, no. 3 (1986), pp. 377-402.
- Johnson, J. D., D. J. Snepenger & S. Akis.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 no. 3 (1994), pp. 280-284.
- King, B., A. Pizam & A. Milman. "Social Impacts of Tourism: Host percep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0, (1993), pp. 650-665.
- Kim, C., D. Scott, J. F. Thigpen & S. S. Kim. "Economic Impacts of a Airding Festival." *Journal of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5, no. 1/2 (1998), pp. 51-58.
- Lankford, S. V. & D.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 (1994), pp. 121-139.
- Lindberg, L. & r. l. Johnson.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4, no. 2 (1997), pp. 402-424.
- Longson, M.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Impacts of a Festival on the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aterloo: University of Waterloo, 1989.
- Mayfield, T. R. & J. L. Crompt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Identifying

- Community Reasons for Staging a Festiv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3, no. 3 (1994), pp. 37-44.
- McCool, S. F. & S. R. Martin.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2, no. 3 (1994), pp. 29-34.
- Mohr, K., K. F. Backman, L. W. Gahan & S. J. Backman.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89-97.
- Mules, T. “A Special Event as Part of an Urban Renewal Strateg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 1 (1993), pp. 65-67.
- O’Reilly, A. M. “Tourism Carrying Capacity: Concept and Issues.” *Tourism Management*, vol. 7, no. 4 (1986), pp. 586-599.
- Peter, J. P. & G. A. Churchill.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Design Choices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Rating Scales: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3(Feb.), (1986), pp. 1-10.
- Rao, V. “Celebrations as Social Investments: Festival Expenditures, Unit Price Variation and Social Status in Rural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8, no. 1 (2001), pp. 71-97.
- Schuster, J. M. “Two Urban Festivals: La Merce and First Night.”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 19, no. 2 (1995), pp. 173-187.
- Seyhmus and McCleary, K. W.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6, no. 4 (1999), pp. 868-897.
- Somnez, S. F., S. Backman & L. W. Allen. “Crisis Management for Event Tourism.”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 1 (1993), pp. 110-120.
- Soutar, G. N. & P. B. McLeod. “Residents’ Perceptions on Impact of the

- America's Cup." *Annals of Tourism Research*, no. 20 (1993), pp. 571-582.
- Thrane, C. "Jazz Festival Visitors and Their Expenditures: Linking Spending Patterns to Musical Interes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0, (2002), pp. 281-286.
- Uysal, M., L. W. Gahan & B. Martin.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 (1993), pp. 5-10.
- Uysal, M. & R. Gitelson. "Assessment of Economic Impacts: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2, no. 1 (1994), pp. 3-10.
- Walo, W., A. Bull & H. Green. "Achieving Economic Benefits at Local Events: A Case Study of a Local Sport Even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 no. 3/4 (1996), pp. 96-106.
- Wight, P. A. "Limits of Acceptable Change: a Recreational Tourism Tool for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A. J. Kennedy(ed.), In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in Canada: from Concept to Practice*. Calgary: Papers from the Fifteenth Symposium Held by the Alberta Society of Professional Biologists, 1994.
- Wilkinson, K. "In search of Community in the Changing Countryside." *Rural Sociology*, vol. 51, no. 1 (1986), pp. 1-17.

### 3. 기타자료

- Butler, R. W.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and Recreation." *Conference Proceedings from the Second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Toronto: Ontario Ministry of Culture and Recreation, 1979.
- Butler, R. W. "Tourism as an Agent of Social Change." *Tourism as a Factor i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Occasional Paper #4*.

- Peterborough: Department of Geography, Trent University. 1975.
- DSS Research. "Process for Developing Valid and Reliable Measurements." *Internet Document*, (1997), <http://www.dssresearch.com/library/general/validity.htm>
- Kehoe, J. "Basic Item Analysis for Multiple-Choice Tests." *Internet Document*, (1995), [http://www.cua.edu/www/eric\\_ae/digests/tm9511.htm](http://www.cua.edu/www/eric_ae/digests/tm9511.htm)
- Novak, T. P. "Lecture Notes-Scale Development." *Internet Document*, (1996), <http://www.ogsm.vanderilt.edu/marketing.research.spring.1996/vuonly/scale/construction.ascil>; M. Michell, "Handout 3.2: Measure of Internet Consistency," *Internet Document*, (1997), <http://psy1.clarion.edu/mm/RDE3/C3/C3handout32.html>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o.1 (1993), pp. 79-86.
- Tourism Canada. *An Analysis and Inventory of Selected Tourism Events/Festivals/Celebrations*. Ottawa: Author, 1988.
- Tourism Canada. *An Analysis and Inventory of Selected Tourism Events/Festivals/Celebrations*. Ottawa: Author, 1989.

【 부록 】 설문지

지역축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설문지를 드리게 되는데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본 설문은 우리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조사되고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의 모든 질문은 옳거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어느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2005. 1.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윤 정 현 배상

I. 아래 문항들은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중요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축제를 통해 지역의 여러 집단들이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 축제를 통해 외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방문하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4. 축제기간 동안 가족이 단합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5.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6. 축제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7.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8.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접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9.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0.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1. 축제를 통해 우리지역 여러 집단들이 상호 협력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2. 축제가 우리지역의 고유성(정체성)을 높여주는 일	①	②	③	④	⑤
13. 축제가 우리지역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4.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5. 축제가 우리지역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	①	②	③	④	⑤
16.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여가, 편의시설이 증가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7.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지역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축제가 기여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0.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인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증대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1.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여가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2. 주민들이 축제참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3. 축제를 통해 내가 우리지역의 특색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4. 축제가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	①	②	③	④	⑤
25.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6.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7. 축제를 통해 가족들이 다함께 여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8. 축제 참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축제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면 즐겁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0.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친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축제참여를 통해 개인적 긍지를 갖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II. 아래 문항들은 축제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한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 축제가 자원봉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	①	②	③	④	⑤
2. 축제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 축제가 인접 지역 간 부정적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4. 축제기간 동안 우리지역이 혼잡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5. 축제기간 동안 지역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하도록 만드는 일	①	②	③	④	⑤
6. 축제준비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	①	②	③	④	⑤
7. 매년 열리는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일	①	②	③	④	⑤
8. 축제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패감을 갖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9. 축제가 지역 여러 집단들간 의견불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0. 축제가 풍기문란을 부추기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1. 축제가 다른 인근 지역주민들을 외면당하게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2. 축제로 인해 지역집단들간의 권한이 불균등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축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4. 축제로 인해 우리지역의 고유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5. 축제기간 동안 차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6. 축제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7. 축제기간 동안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18. 축제기간 동안 쓰레기가 넘쳐나는 일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①	걱정되지 않는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걱정된다 ④	매우 걱정된다 ⑤
19. 축제기간 동안 소란스럽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0. 축제기간 동안 소음이 심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1. 축제가 우리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2.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손해 및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23. 지역주민들이 다른 때보다 축제로 인해 좋지 않은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축제에 대한 일반적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3	그렇다 4	정말 그렇다 5
1. 나는 우리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에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지역은 일가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1	2	3	4	5
3. 나는 우리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축제에 항상 참여하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우리지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1	2	3	4	5
7. 나는 우리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친근감 있게 지낸다.	1	2	3	4	5
9. 나는 우리지역의 여러 단체에 관여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1	2	3	4	5

